

2020 가을

#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특별주제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과 정책 과제  
2020년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경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옥소연 syock1101@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 목 차

##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1
6. 세계경제 .....	14

##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5
2. 농촌 물가 .....	16
3. 농림어업 취업자 .....	19
4. 농축산물 수출입 .....	21

##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7
2. 엽근채소 .....	33
3. 양념채소 .....	39
4. 과일 .....	46
5. 과채 .....	53
6. 축산 .....	60

## IV.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 1. 조사 개요 ..... 67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68

### 특별주제

-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83
-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103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과 정책 과제 ..... 121
- 2020년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131

# 요 약

## I .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II.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 (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III. 특별주제

####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 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I . 일반경제 동향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 경제성장2)

-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1.3%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투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전기 대비 2.5% 증가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				2019 <sup>1)</sup>				2020 <sup>2)</su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GDP 성장률	1.1	0.6	0.6	0.9	-0.3	1.0	0.4	1.3	-1.3	-3.2	1.9(-1.3)
민간소비	1.3	0.3	0.5	0.5	0.1	0.7	0.4	0.7	-6.5	1.5	-0.1(-4.5)
정부소비	2.2	0.4	2.0	2.3	1.1	1.7	1.7	1.8	1.4	1.1	0.1(4.5)
건설투자	1.3	-2.7	-6.9	2.3	-0.7	2.9	-6.4	8.0	0.5	-1.5	-7.8(-1.6)
설비투자	4.7	-8.9	-3.3	2.4	-8.5	2.6	1.7	2.6	0.2	-0.5	6.7(9.1)
총 수출	3.7	1.0	4.2	-1.6	-3.1	1.9	4.5	0.6	-1.4	-16.1	15.6(-3.7)
총 수입	5.4	-2.2	-0.8	1.0	-3.2	2.9	1.2	0.4	-3.6	-6.7	4.9(-5.3)

주 1. 2018, 2019<sup>1)</sup>, 2020<sup>2)</su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0.10.27.)」,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9.11., 2020.10.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 설비투자, 수출입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함.
  -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 소비가 줄어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0.1% 증가하였음.
  - 2020년 3/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7.8%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7% 증가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9%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건설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증가세로 전환됨.
  -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1.8% 증가함.
  -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증가로 7.6% 증가함.
  - 서비스업은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함.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8				2019 <sup>o</sup>				2020 <sup>o</su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1.4	-2.1	-3.4	2.8	5.8	-5.5	2.9	-1.5	3.7	-9.5	1.8(-5.9)
제조업	1.0	1.4	1.9	1.1	-2.9	1.0	1.8	1.8	-1.0	-8.9	7.6(-1.0)
서비스업	1.6	0.5	0.7	0.8	0.6	0.8	0.5	1.3	-2.4	-0.9	0.7(-1.5)
(도소매 및 음식숙박)	0.0	1.0	1.2	0.8	0.0	-1.6	0.8	1.4	-4.7	-3.1	0.3(-6.1)
(운수업)	-1.0	3.1	0.1	1.4	-2.3	0.8	0.3	0.7	-11.8	-8.8	3.3(-16.3)
(금융 및 보험)	4.0	0.3	1.0	-0.4	2.1	2.1	0.4	1.2	2.2	3.9	1.9(9.5)
(부동산업)	2.8	-0.4	-0.1	1.2	0.9	0.4	0.1	1.6	-0.7	0.8	0.2(2.0)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5	1.8	4.5	2.3	0.5	1.5	3.5	2.4	-3.4	-1.9	3.8(0.7)

주 1. 2018, 2019<sup>o</sup>, 2020<sup>o</su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sup>3)</sup>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 2020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07만 명으로 전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농림어업, 건설업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는 9만 6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30만 3천 명, 일용근로자가 4만 1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6만 5천 명, 15만 9천 명 감소하였음.

###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7,895	28,186	27,702	28,432	28,328	28,283	27,911	28,075	28,068	-0.9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2.4	63.9	63.6	63.4	62.5	62.7	62.6	-1.0
취업자	26,822	27,123	26,461	27,256	27,382	27,393	26,749	26,849	27,068	-1.1
• 농림어업	1,340	1,395	1,158	1,475	1,538	1,409	1,255	1,534	1,548	0.7
• 광공업	4,529	4,444	4,447	4,438	4,417	4,473	4,453	4,382	4,357	-1.4
(제조업)	4,510	4,429	4,432	4,424	4,403	4,458	4,438	4,369	4,346	-1.3
• 건설업	2,034	2,020	1,970	2,030	2,034	2,044	1,962	1,969	2,043	0.4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5	5,966	5,943	5,996	5,982	5,943	5,817	5,641	5,605	-6.3
실업자	1,073	1,063	1,241	1,176	946	891	1,162	1,226	1,001	5.8
실업률(계절조정)	3.9	3.8	3.9	4.0	3.5	3.6	3.7	4.2	3.8	0.3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9월 고용동향(2020.10.16.)」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9.11., 2020.10.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3. 소비4)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 증가함.
- 2020년 7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가 모두 감소하여 전월 대비 6.0% 감소함.
- 2020년 8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4%) 감소에도 가전제품 등 내구재(12.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3.0% 증가함.
-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증가 및 온라인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8	2019p				202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p	8월p
민간소비	3.2	1.7	0.1	0.7	0.4	0.7	-6.5	1.4	-	-
소매판매	4.3	2.4	0.9	0.5	0.3	1.9	-6.4	6.5	-6.0	3.0
(내구재)1	5.7	1.8	0.8	0.1	0.4	5.1	-6.0	18.3	-15.4	12.7
(준내구재)2	5.8	0.6	-1.0	1.0	-1.5	-1.3	-17.4	11.7	-5.6	-4.4
(비내구재)3	2.9	3.4	1.7	0.6	1.0	1.6	-2.1	-1.0	-0.6	0.9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9년, 2020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0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 원으로 전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함.
  -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이전소득과 경상소득은 각각 80.8%, 44.4%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4.6%,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9.11., 2020.10.16.)을 참고하여 재처리함.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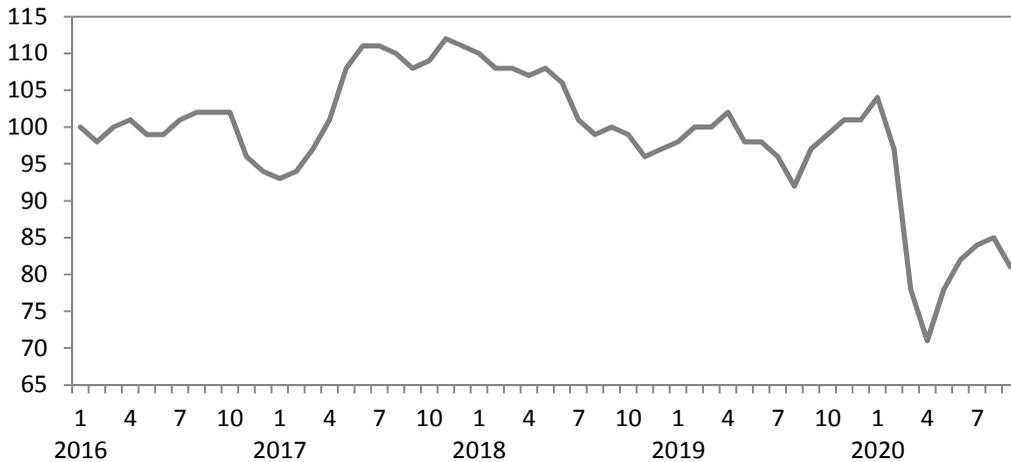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득	3.7	4.2	4.6	3.6	8.5	11.1	10.0	10.1	3.7	4.8
경상소득	7.5	6.3	5.7	4.8	7.7	10.6	9.7	9.5	2.4	4.3
(근로소득)	6.1	5.3	4.5	6.2	8.1	12.2	9.7	9.8	1.8	-5.3
(사업소득)	5.7	3.8	1.1	-3.4	1.5	6.7	8.1	15.0	2.2	-4.6
(재산소득)	3.4	34.4	9.3	4.9	63.6	63.5	64.3	36.6	22.4	-11.7
(이전소득)	19.2	16.6	22.8	11.9	12.7	6.2	10.8	-2.8	4.7	80.8
비경상소득	-79.2	-68.6	-49.6	-55.3	101.7	66.5	40.1	80.4	79.8	44.4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9년 1분기부터 전채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은 1인 이상 가구로 발표되어 2018년은 전가구(2인 이상), 2019년 이후는 전가구(1인 이상) 가계소득 자료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 2020년 9월 소비심리지수<sup>5)</sup>는 86으로 4월 71에서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71 → 5월 78 → 6월 82 → 7월 84 → 8월 85 → 9월 81

###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4. 물가6)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5.5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모두 각각 1.0%, 0.3%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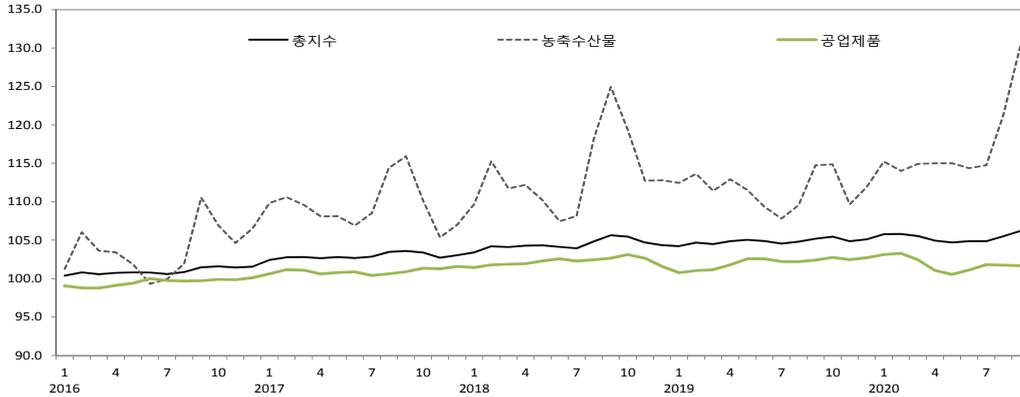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4.5 (1.5)	104.5 (0.5)	104.9 (0.7)	104.9 (0.0)	105.2 (0.3)	105.7 (1.2)	104.8 (-0.1)	105.5 (0.6)
상 품	102.7 (1.3)	101.7 (-0.4)	102.5 (0.3)	102.1 (-1.0)	103.0 (-0.2)	103.7 (1.9)	102.2 (-0.4)	103.2 (1.0)
농축수산물	113.6 (3.7)	112.5 (0.2)	111.3 (1.2)	110.7 (-5.4)	112.2 (-2.5)	114.7 (2.0)	114.8 (3.2)	122.1 (10.3)
공업 제품	102.2 (1.3)	101.0 (-0.7)	102.3 (0.0)	102.3 (-0.2)	102.7 (0.2)	103.0 (2.0)	100.9 (-1.4)	101.8 (-0.5)
전기·수도·가스	86.9 (-2.9)	88.6 (1.3)	88.6 (1.3)	85.6 (1.9)	90.0 (1.5)	90.0 (1.5)	89.8 (1.3)	81.9 (-4.3)
서 비 스	105.9 (1.6)	106.7 (1.3)	106.9 (0.9)	107.1 (0.9)	106.9 (0.7)	107.4 (0.6)	107.1 (0.1)	107.4 (0.3)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0년 9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농축수산물과 전기·수도·가스는 전월 대비 각각 7.5%, 8.1%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1% 하락함.
  - 집세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으나 공공 및 개인서비스는 각각 0.9%, 0.3% 하락함.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20.10.06.)」, 한국은행 「2020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20.10.21.)」, 「2020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20.10.16.)」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9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기타 상품·서비스, 의류·신발은 상승, 주류·담배는 변동이 적으며, 보건·통신, 음식·수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교육은 하락하였음.
- 2020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1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전기 대비 6.3%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1.1% 하락하였으나 채소와 과실은 각각 27.2%, 8.5%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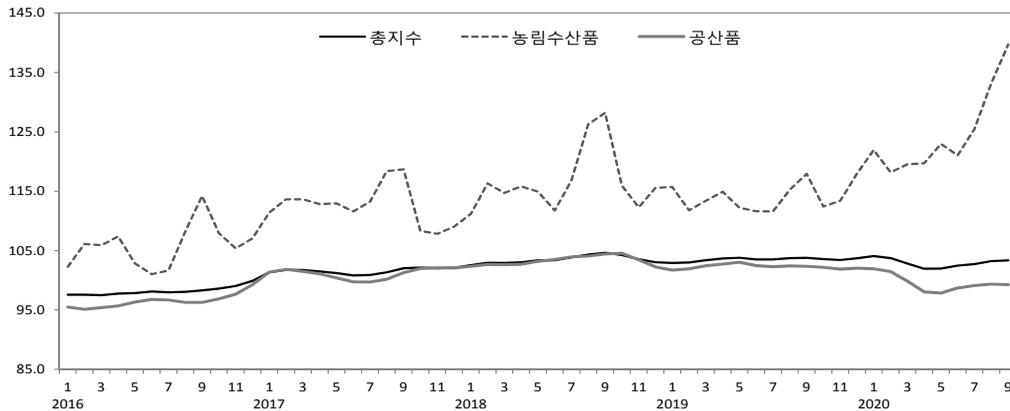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9					2020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1.7	112.5	111.3	110.7	112.2	114.7	114.8	122.1	10.3	6.3
농산물	113.7	117.6	113.0	111.4	113.0	117.0	112.7	125.1	12.3	11.0
곡물	118.5	119.6	119.0	118.0	117.5	115.5	114.7	115.1	-2.5	0.4
채소	111.4	110.3	101.9	112.5	120.9	125.7	112.0	143.1	27.2	27.8
과실	110.7	120.7	117.3	103.9	101.1	108.6	111.2	112.7	8.5	1.4
기타농산물	124.8	130.0	127.2	123.4	118.8	118.0	115.5	122.1	-1.1	5.7
축산물	107.3	103.9	107.6	108.6	109.0	108.3	115.2	118.3	9.0	2.7
수산물	113.5	112.4	113.0	112.7	115.7	120.1	121.6	119.3	5.9	-1.9

자료: 통계청

- 2020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였음.
  - 2020년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전월 대비 4.9%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1% 하락함.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가 하락하여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으나 서비스는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2% 하락함.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기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9월 수출물가지수는 94.7로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3%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4.7로 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3.8로 전월 대비 1.2% 하락함.

- 2020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기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6.1% 하락함.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4.6로 전월 대비 0.4%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99.9 (-3.4)	99.6 (-1.8)	101.5 (-0.9)	101.1 (-4.8)	97.7 (-5.8)	96.8 (-2.8)	94.5 (-6.9)	94.9 (-6.1)	95.0 (-6.7)	94.7 (-6.2)
농림수산물	116.8 (1.8)	118.6 (4.9)	117.6 (4.7)	118.1 (2.0)	113.0 (-4.0)	116.6 (-1.7)	115.0 (-2.2)	114.7 (-2.9)	115.2 (-3.5)	113.8 (-3.6)
농 산 물	115.9 (15.8)	117.1 (30.6)	116.7 (25.2)	118.5 (12.8)	111.4 (-1.0)	115.4 (-1.5)	118.2 (1.3)	115.0 (-2.9)	114.9 (-5.0)	114.1 (-2.5)
공 산 품	99.9 (-3.4)	99.5 (-1.8)	101.4 (-1.0)	101.0 (-4.8)	97.6 (-5.8)	96.7 (-2.8)	94.4 (-6.9)	94.9 (-6.1)	95.0 (-6.7)	94.6 (-6.2)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0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9.3으로 전기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함.
- 2020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98.0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광산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7% 하락함.
- 2020년 3/4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01.8로 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으며,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02.8로 전월 대비 1.7% 상승함.
- 2020년 3/4분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2.2로 전기와는 비슷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9월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1.9로 전월 대비 0.4%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109.3 (0.8)	107.3 (3.3)	111.4 (3.1)	110.7 (-1.1)	108.0 (-1.7)	105.0 (-2.1)	98.4 (-11.7)	99.3 (-10.3)	99.3 (-10.5)	98.0 (-11.5)
농림수산물	102.1 (3.9)	97.4 (0.8)	102.6 (3.8)	103.8 (4.8)	104.5 (5.9)	104.0 (6.8)	103.9 (1.2)	101.8 (-1.9)	101.0 (-3.4)	102.8 (-2.0)
농 산 물	98.6 (1.1)	95.4 (0.1)	100.0 (1.3)	100.3 (2.1)	98.8 (1.0)	99.1 (3.9)	98.8 (-1.1)	99.9 (-0.4)	98.9 (-2.0)	102.2 (2.6)
공 산 품	104.4 (1.0)	102.3 (1.6)	105.7 (3.0)	105.8 (0.0)	103.7 (-0.6)	103.8 (1.4)	102.2 (-3.3)	102.2 (-3.4)	102.3 (-3.9)	101.9 (-3.8)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5. 금융·환율<sup>7)</sup>

- 2020년 8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7% 증가)함.
- 2020년 8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감소함.
- 2020년 8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9						202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 <sup>1)</sup>	3.8	4.7	5.0	5.3	7.0	9.6	11.5	12.0	14.6	16.9	19.3	21.3	23.0	24.0
M2 <sup>2)</sup>	6.6	6.8	7.6	7.5	7.7	7.9	7.8	8.2	8.4	9.1	9.9	9.9	10.0	9.5
Lf <sup>3)</sup>	8.0	8.2	8.4	8.3	8.4	8.2	8.2	8.5	8.3	8.6	8.8	8.6	8.4	7.9
본원통화 <sup>4)</sup>	7.7	9.4	7.5	7.3	8.6	7.8	12.3	8.0	11.6	11.8	15.0	15.1	17.8	15.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0년 8월 국고채(3년) 금리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0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0.10.15.)」과 「2020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2020.10.13.)」, 「2020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0.10.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코스피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일시 급락하였다가 주요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인하여 반등함.

##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9			2020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고채(3년)	1.4	1.5	1.4	1.4	1.3	1.1	1.0	0.9	0.9	0.8	0.8	0.9	0.9
회사채 <sup>1</sup>	1.9	2.0	1.9	2.0	1.8	1.8	2.1	2.2	2.2	2.2	2.2	2.2	2.2
CD유통수익률 (91일)	1.5	1.5	1.5	1.5	1.4	1.2	1.1	1.0	0.8	0.8	0.7	0.6	0.6
콜금리 <sup>2</sup>	1.4	1.3	1.3	1.3	1.2	1.0	0.7	0.7	0.5	0.5	0.5	0.5	0.5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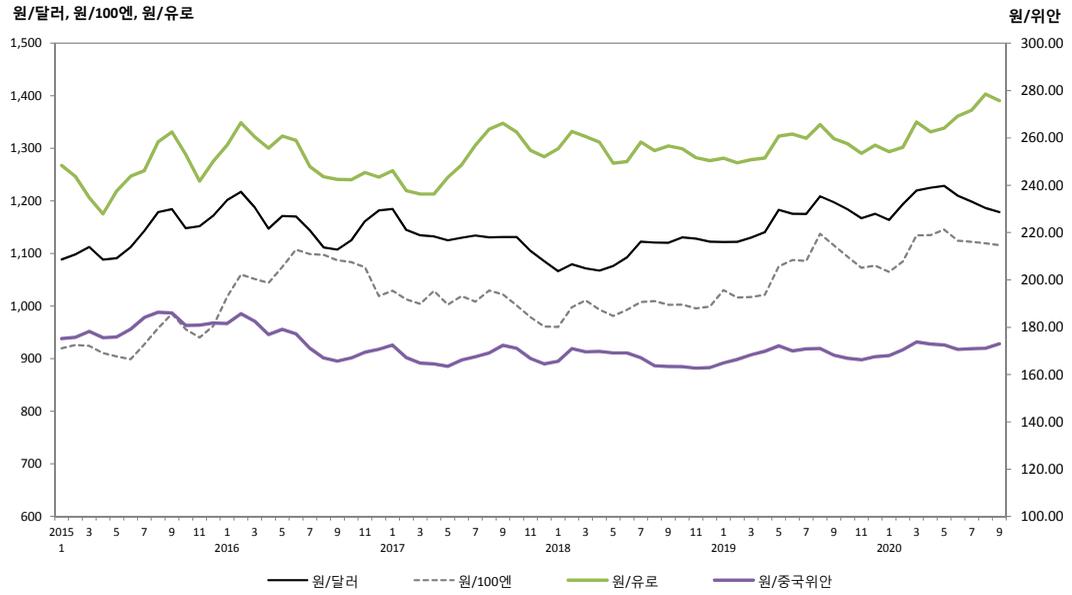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6% 하락한 1,189원임.
  - 2020년 9월 원/달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미 달러화 약세 등에 비해 원화 강세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빠르게 하락하였음.
- 2020년 3/4분기 원/100엔 환율은 전기 대비 1.3% 하락한 1,119원, 원/유로는 전기 대비 3.2% 상승한 1,388원, 원/위안은 전기 대비 0.2% 하락한 173원/위안으로 나타남.

##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100	1,166	1,125	1,166	1,193	1,176	1,194	1,221	1,189	1,187	1,179
원/100엔	996	1,070	1,022	1,060	1,112	1,081	1,096	1,135	1,119	1,120	1,116
원/유로	1,299	1,305	1,278	1,310	1,328	1,302	1,317	1,345	1,388	1,403	1,391
원/위안	166	169	167	171	170	167	171	172	172	171	173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 6. 세계경제<sup>8)</sup>

- 미국은 5월 이후 실물지표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개선폭이 둔화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및 공공투자가 증가세가 이어져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은 실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서비스업 PMI가 지속 기준치(50)를 하회하는 등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유로존 경제는 8월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일부 국가의 부분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한 9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3.0	2.2	2.9	1.5	2.6	2.4	-5.0	-31.7	-	-
	산업생산(전기비)	3.9	0.9	-0.5	-0.6	0.3	0.1	-1.7	-13.2	3.5	0.4
	소매판매(전기비)	4.4	3.5	0.5	1.8	1.1	0.5	-2.2	-7.1	0.9	0.6
	실업률(계절조정)	3.9	3.7	3.9	3.6	3.5	3.8	13.0	10.2	8.4	7.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4	1.8	1.6	1.8	1.8	2.0	2.1	0.4	1.0	1.3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7	6.1	6.4	6.2	6.0	6.0	-6.8	3.2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5.7	6.5	5.6	5.0	5.9	-8.4	4.4	4.8	5.6
	소매판매(전년동기비)	9.0	8.0	8.3	8.5	7.6	7.7	-19.0	-4.0	-1.1	0.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9	1.8	2.6	2.9	4.3	5.0	2.7	2.7	2.4
일본	실질GDP(전기비)	0.3	0.7	0.7	0.4	0.0	-1.8	-0.6	-7.9	-	-
	산업생산(전기비)	1.0	-2.7	-2.1	0.0	-1.1	-3.7	0.4	-16.9	1.9	8.7
	소매판매(전기비)	1.7	0.1	-1.1	0.2	3.3	-6.4	1.6	-7.5	13.1	-3.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0	0.5	0.3	0.8	0.3	0.5	0.1	0.1	0.3	0.2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8	1.3	0.5	0.1	0.3	0.1	-3.7	-11.8	-	-
	산업생산(전기비)	0.7	-1.3	0.4	-0.6	-0.6	-1.2	-3.4	-15.8	9.5	5.0
	소매판매(전기비)	1.6	2.3	0.8	0.5	0.5	0.3	-2.7	-5.0	5.5	-1.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2	1.4	1.4	1.0	1.0	1.1	0.2	0.3	0.4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9.11., 2020.10.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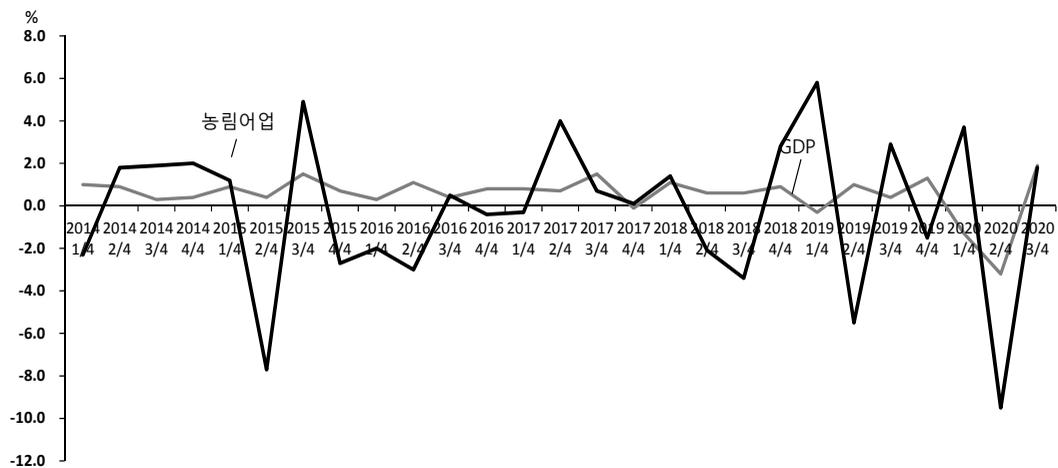
## II. 농촌경제 동향<sup>1)</sup>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0년 3/4분기 7조 7,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는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56조 8,6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는 1.9%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1)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 2. 농촌 물가

###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5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8로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0.2% 하락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1%, 57.4%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69.2% 상승함.
  - 두류/잡곡은 콩과 검정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13.0% 하락하였으나 옥수수, 팔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34.0%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43.3% , 전기 대비 53.1% 상승한 136.1로 나타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66.9% 상승함.
  - 근채류는 무, 당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2%, 88.6%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92.7% 상승함.
  - 조미채소류는 양파, 건고추, 마늘 등 생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0% 상승함.
  - 과채류는 토마토, 호박, 가지, 오이 등을 중심으로 모든 품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4% 상승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3.4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25.7% 하락함.
  - 주요 과실 중 배는 전년 동기 대비 12.8% 하락하였으나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은 각각 54.5%, 23.5%, 27.8%, 0.6%, 14.3% 상승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8로 전년 동기 대비 6.6%, 전기 대비 1.9% 상승함.
  - 한우 수소, 한우 암송아지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그 외 한우 암소, 육우, 한우 수송아지 등은 상승함.
-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7.6%로 전년 동기 대비 6.6%, 전기 대비 4.6%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20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8.5	109.1	108.1	101.5	113.0	117.5	15.8	4.0
곡물	280.1	118.2	122.4	128.8	112.4	121.0	120.8	7.5	-0.2
-미국	234.3	112.2	122.8	122.6	121.3	123.8	120.7	-0.5	-2.5
-맥류	5.5	93.4	96.4	100.0	85.7	95.1	85.8	0.1	-9.8
-두류/잡곡	23.9	138.0	147.3	183.3	107.0	124.4	143.4	34.0	15.3
-서류	16.4	148.3	93.4	109.4	61.3	105.7	103.7	69.2	-1.9
청과물	406.5	118.2	117.0	110.0	102.8	127.9	138.9	35.1	8.6
-채소	268.9	110.9	101.6	85.1	95.0	88.9	136.1	43.3	53.1
-과수	137.6	130.3	142.5	151.4	115.8	192.9	143.4	23.8	-25.7
축산물	252.6	97.1	97.4	98.0	97.4	101.9	103.8	6.6	1.9
-가축	185.1	101.6	101.0	102.4	100.8	106.5	109.5	8.6	2.8
-기타	67.5	89.4	91.0	90.3	91.4	94.0	93.7	2.5	-0.3
기타농산물	60.8	101.9	102.3	99.8	91.6	93.3	97.6	6.6	4.6
-특용작물	42.4	94.3	98.3	89.2	98.3	91.1	95.8	-2.5	5.2
-화훼	15.3	115.3	108.7	117.0	79.6	95.9	99.9	25.5	4.2
-부산물	3.0	93.1	103.5	102.4	102.4	105.5	105.5	3.0	0.0

자료: 통계청

##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20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2.5	104.1	104.4	104.3	105.6	106.6	2.2	0.9
가계용품	484.8	104.6	104.9	105.0	104.9	105.5	106.4	1.4	0.9
재료비	250.6	92.7	95.6	96.4	96.4	101.5	102.9	6.7	1.4
-종자종묘	27.5	107.7	112.6	112.6	112.6	113.1	118.7	5.4	5.0
-비료비	39.0	72.6	72.6	72.6	72.6	77.9	77.9	7.3	0.0
-농약비	29.3	95.3	96.8	96.8	96.8	118.9	118.9	22.8	0.0
-사료비	136.0	94.4	98.2	99.5	99.5	102.1	103.4	3.9	1.3
-영농자재비	18.7	95.9	97.7	98.5	98.5	102.6	102.6	4.2	0.0
노무비	45.0	114.8	119.6	119.5	120.6	123.4	124.7	3.4	1.1
경비	129.0	102.7	106.6	106.4	106.5	101.6	102.9	-3.4	1.3
-영농광열비	32.6	108.4	107.7	110.3	109.4	78.3	84.2	-23.0	7.5
-임차료	40.5	101.3	109.8	109.2	109.6	111.9	112.1	2.3	0.2
-농작업위탁비	42.5	101.7	105.5	103.9	103.9	110.3	110.3	6.2	0.0
-판매자재비	13.3	96.5	97.6	96.5	98.2	99.1	97.4	-0.8	-1.7
자산구입비	90.6	111.6	112.4	112.5	112.5	114.3	114.0	1.3	-0.3
-기계구입	58.9	104.2	104.6	104.9	104.9	104.2	104.7	-0.2	0.5
-가축구입비	31.7	125.2	126.9	126.7	126.5	133.0	131.4	3.9	-1.2

자료: 통계청

- 재료비 지수는 102.9로 전년 동기 대비 6.7%, 전기 대비 1.4% 상승함.
  -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노무비 지수는 124.7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고, 자산구입비는 114.0으로 1.3% 상승하였으나 경비는 102.9로 3.4%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0년 3/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104.1임.

###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5.8% 상승했기 때문임.

####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9		2020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8.1	101.5	113.0	117.5	15.8	4.0
농가구입가격(B)	104.4	104.3	105.6	106.6	2.2	0.9
농업투입재가격	101.5	101.6	102.5	104.1	2.5	1.5
농가교역조건(A/B×100)	103.5	97.3	107.0	110.2	13.3	3.0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전기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였고, 전기 대비는 0.7%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92만 5천 명, 여성 수는 3.9% 감소한 62만 3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81만 명임.

###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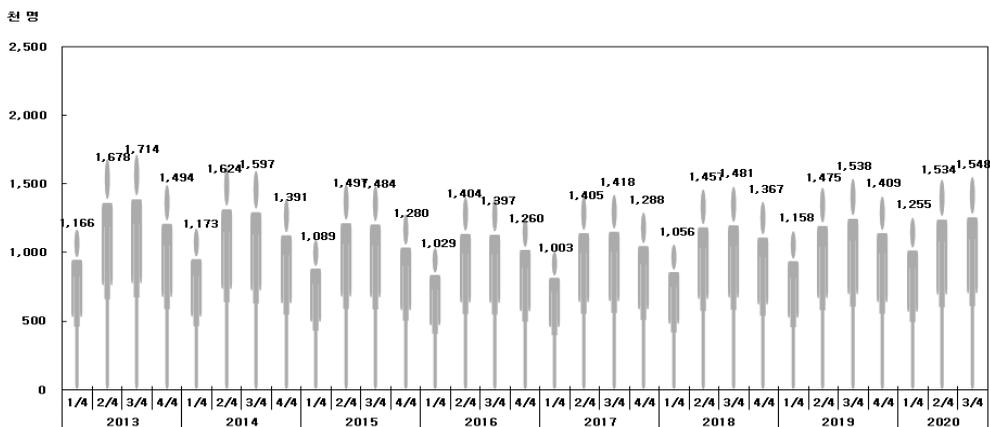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2019		2020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계절조정)	27,256 (27,035)	27,382 (27,146)	26,849 (26,632)	27,068 (26,839)	-1.1 (-1.1)	0.8 (0.8)
	농림어업 (계절조정)	1,475 (1,356)	1,538 (1,395)	1,534 (1,414)	1,548 (1,404)	0.7 (0.6)	0.9 (-0.7)
	남성	859	890	907	925	3.9	2.0
	여성	616	648	627	623	-3.9	-0.6
	농가	1,752	1,813	1,795	1,810	-0.2	0.8
	농가남성	985	1,010	1,008	1,010	0.0	0.2
농가여성	768	802	787	800	-0.2	1.7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2/4분기 147만 5천 명, 3/4분기 153만 8천 명, 4/4분기 140만 9천 명으로 2019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1/4분기는 125만 5천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20년 2분기 153만 4천 명, 2020년 3분기 154만 8천 명으로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음.

###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4. 농축산물 수출입

### 4.1. 수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97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함.
  - 곡류와 과실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6.2% 증가하였으나 채소류는 잣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49.8% 감소함.
  - 축산물은 낙농품은 3.5% 감소하였으나 포유육류, 가금육류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여 전년 동기 26.9%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였음. 한편, 수산물은 11.7%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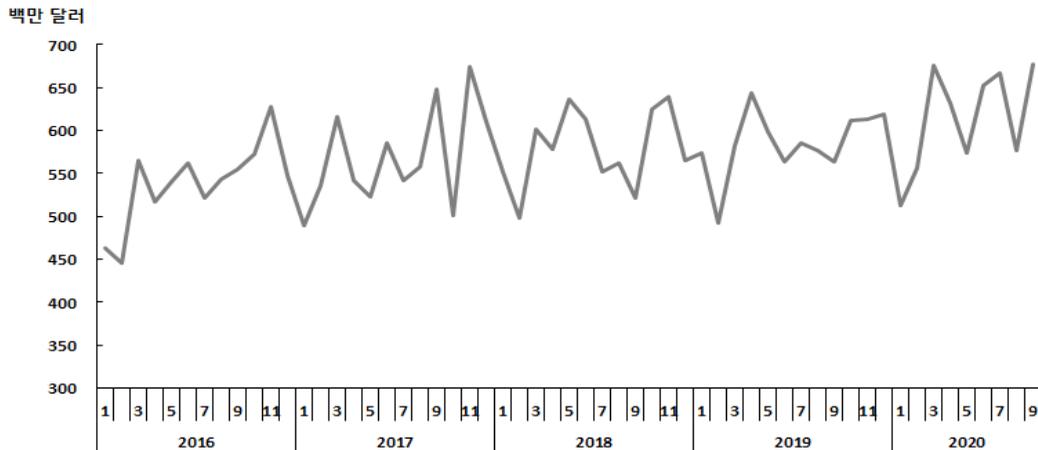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64	1,807	1,049	1,727	1,077	1,859	975	1,920	-7.1	11.2
농산물	865	1,582	842	1,505	788	1,627	800	1,697	-5.0	12.8
-곡류	62	28	12	8	64	26	13	12	12.2	47.6
-과실류	23	55	30	91	19	47	32	88	6.2	-3.4
-채소류	64	111	65	102	47	120	33	105	-49.8	2.5
축산물	40	124	41	117	52	126	52	126	26.9	8.4
-포유육류	0	2	1	3	1	6	1	6	158.4	95.0
-가금육류	12	16	13	16	15	21	14	18	4.0	12.4
-낙농품	10	43	10	40	10	38	9	37	-3.5	-5.9
임산물	159	101	166	106	238	105	123	97	-26.2	-8.4
수산물	183	672	151	579	141	553	133	560	-11.7	-3.3
전체	1,247	2,479	1,200	2,306	1,218	2,412	1,108	2,480	-7.7	7.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와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6%, 2.5% 증가하였으나 과실류는 3.4% 감소하여 12.8%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낙농품은 감소하였으나 포유육류, 가금육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함.
- 2020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7,68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전월 대비 17.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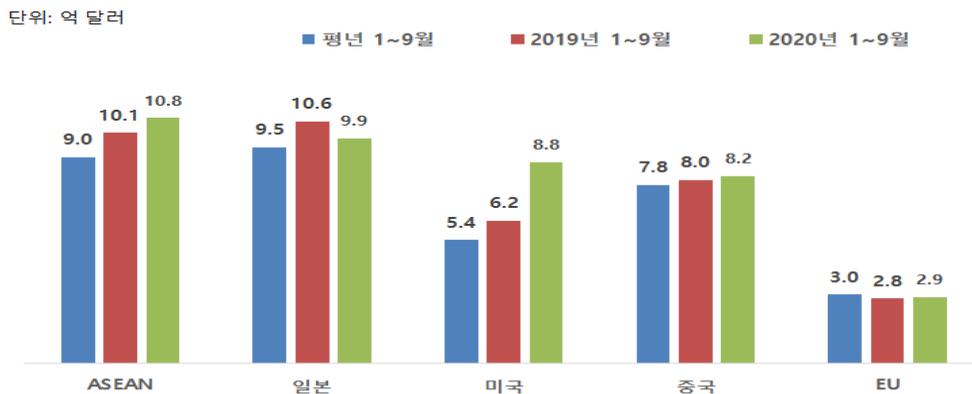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0년 1~9월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 2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34억 1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미국(41.2%), 아세안(6.5%), EU(2.3%)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음.

- 2020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9.5으로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소비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 수출국 경기는 54.2, 수출상품 제조원가 67.5, 국제수급 70.1 등이 부정적으로 전망됨.<sup>2)</sup>
  -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22.5%)과 원재료 가격 상승(15.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0년 4분기」.

## 4.2. 수입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295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5.3%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2%, 15.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2) 한국무역협회,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0.06.19).

-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각각 2.9%, 7.4%, 0.9%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보리는 감소하였으나 쌀, 밀, 옥수수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수입과일은 감소하였으나 포도 등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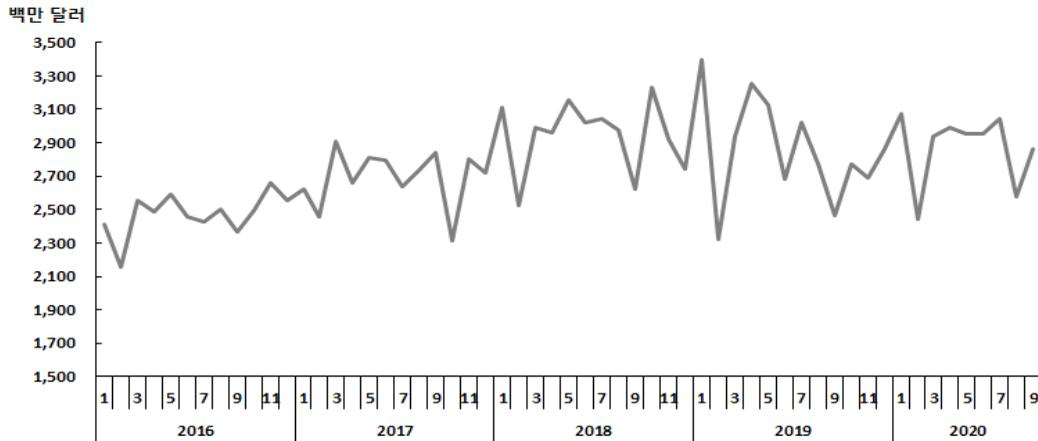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065	9,060	12,832	8,260	13,875	8,898	12,956	8,483	1.0	2.7
농 산 물	9,226	5,390	8,433	4,659	9,203	5,438	8,786	5,056	4.2	8.5
-곡류	3,990	1,042	3,701	855	4,064	1,027	4,046	955	9.3	11.7
-과실류	392	697	267	397	356	613	260	434	-2.6	9.3
-채소류	295	232	289	233	297	245	301	256	4.1	10.0
축 산 물	461	1,920	451	2,067	437	1,856	431	2,006	-4.6	-2.9
-포유육류	275	1,231	263	1,278	241	1,160	239	1,214	-9.2	-5.0
-가금육류	45	112	46	122	42	105	44	103	-4.0	-15.3
-낙농품	83	271	88	289	84	297	95	323	8.1	11.6
임 산 물	4,377	1,750	3,948	1,534	4,235	1,604	3,739	1,420	-5.3	-7.4
수 산 물	1,413	1,406	1,244	1,386	1,413	1,323	1,438	1,374	15.6	-0.9
전 체	15,477	10,466	14,076	9,647	15,287	10,221	14,395	9,857	2.3	2.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0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8억 5,9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9%, 전월 대비 10.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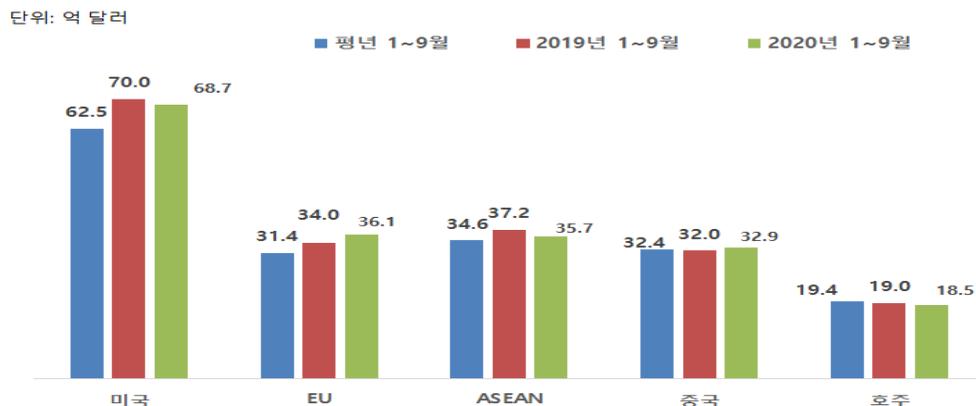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9월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258억 3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219억 4천만 달러임.
  - 주요 수입국 중 미국, 아세안, 호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0년 3분기」.

### 4.3. 순수입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19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798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37만 9천 톤임.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65억 6천만 달러임.
  - 축산물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 4.4%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2%, 19.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9년 3/4분기		20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783	6,533	11,981	6,563	1.7	0.5
농 산 물	7,591	3,155	7,986	3,360	5.2	6.5
축 산 물	410	1,950	379	1,880	-7.7	-3.6
임 산 물	3,782	1,428	3,616	1,323	-4.4	-7.3
수 산 물	1,093	808	1,305	814	19.4	0.8
전 체	12,876	7,341	13,286	7,377	3.2	0.5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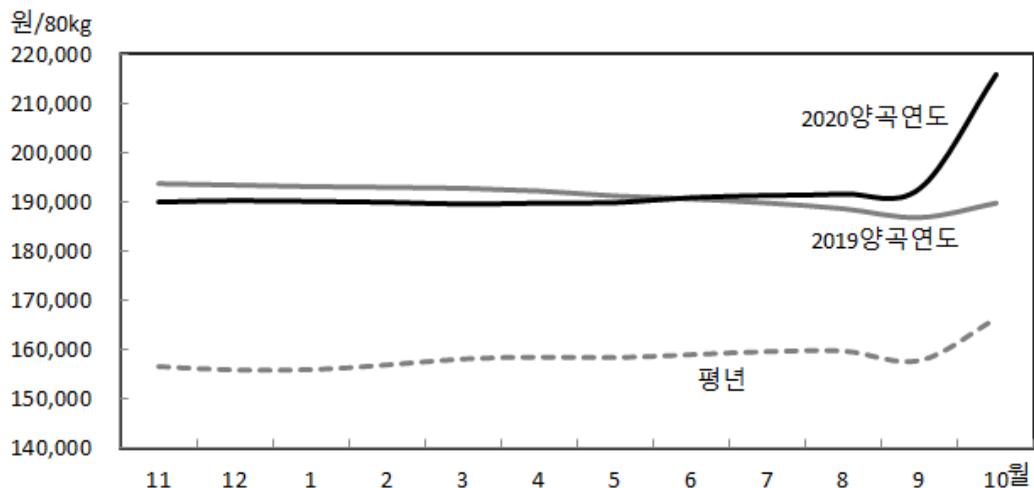
#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 곡물<sup>1)</sup>

###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5~201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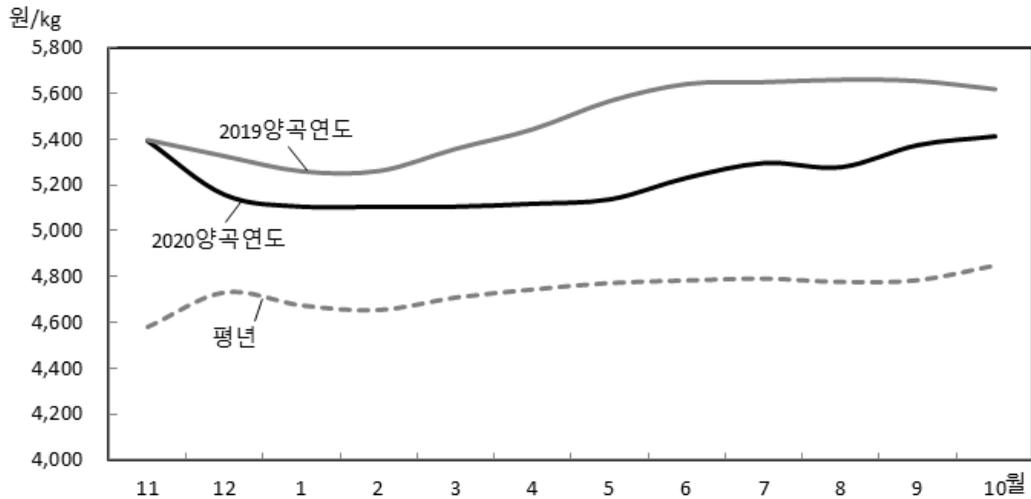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2020년 3/4분기 산지 쌀 가격은 19만 1,853원/80kg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0.9%, 1.8% 상승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안정욱 (ahn035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산지유통업체 전년 대비 재고 감소폭이 큰 영향 등으로 조곡 가격이 상승하며 수확기 대비 1.0%의 계절진폭 발생
    - \*산지유통업체 전년 대비 재고량: 6월 말,  $\Delta 14.6\%$  → 9월 말,  $\Delta 42.2\%$
  - 9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2019년산 구곡 재고 감소와 2020년산 조생종 작황 부진 등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각각 0.6%, 3.2% 상승한 19만 2,727원/80kg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평균 가격은 2020년산 생산량 감소(통계청 예상생산량 기준 전년 대비 3.0% 감소)와 구곡 재고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8% 상승한 21만 5,847원/80kg
      -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도복 피해 및 흑·백수, 수발아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 10월 5일자 수확기 초기 가격은 조생종 수량 감소와 수확 지연 등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급상승하였으나, 중만생종 수확이 이루어지며 10월 순기별 가격은 하락
      - \*(10/5) 219,288원/80kg → (10/15) 214,296원  $\Delta 2.3\%$  → (10/25) 213,956원  $\Delta 0.2\%$
    - 4/4분기 산지 쌀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곡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만생종 출하 증가로 수확기 초기인 10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

## 1.2. 콩

###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5~2019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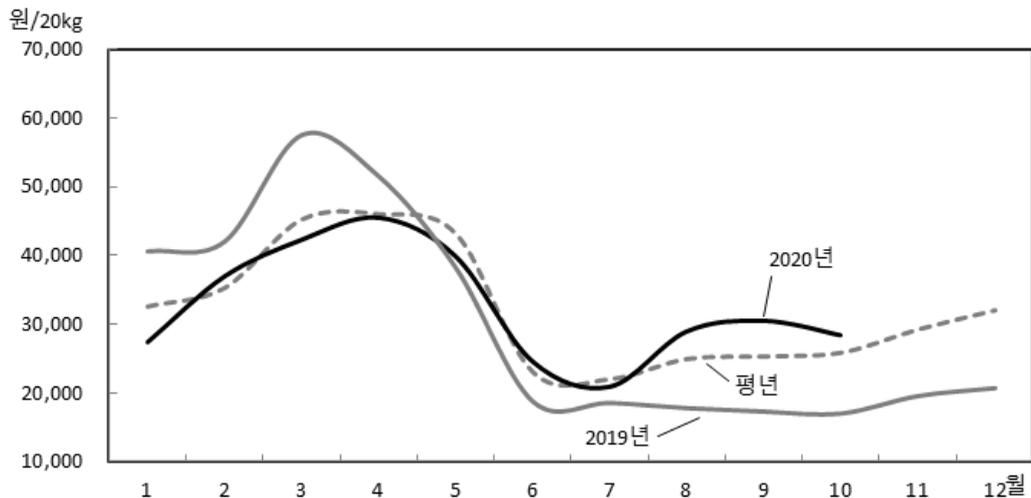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2020년 3/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317원/kg으로 전 분기 대비 3.0% 상승
  - 국산 콩 도매가격(상품)은 콩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세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
    - ※ 정부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매물량 증대에 따른 시장공급물량 부족 해소 및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매물량을 6월부터 매월 방출하여 총 8,905톤을 시장에 공급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2020년산 작황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전 월 대비 0.7% 상승
  - 4/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밭콩, 논콩 모두 작황이 부진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분기 대비 강보합세 전망

- 2020년산 콩 재배면적은 기상 악화로 인한 전작 작물의 수확 지연 등으로 콩 파종을 포기한 경우 등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6.0% 감소한 55,008ha
- 단수는 생육기 긴 장마로 인한 습해 및 개화기 태풍으로 착첩률이 저조해 전년 대비 11.4% 감소한 160kg/10a 수준 전망

### 1.3. 감자

####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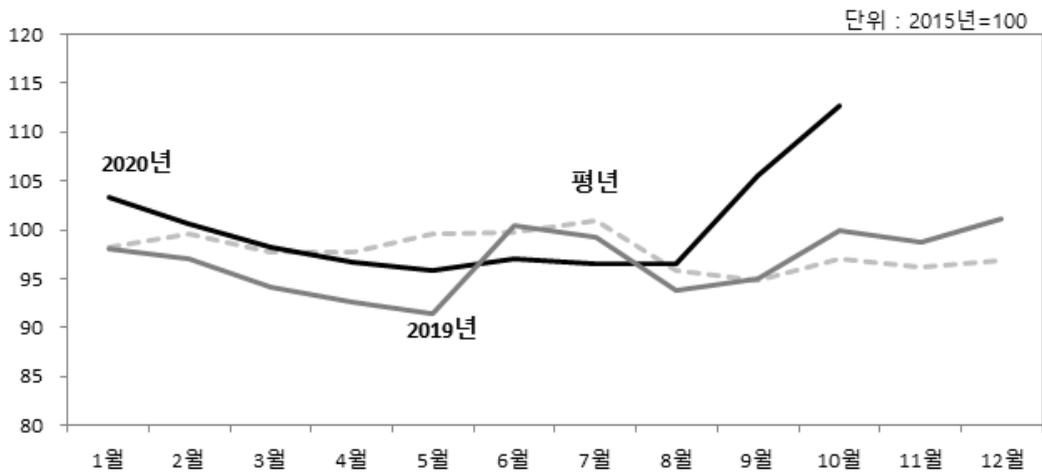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5~2019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26,826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 상승
  - 3/4분기 수미 가격은 노지 봄감자 생산량 감소와 기상악화에 따른 고랭지감자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강세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수미(상품) 도매가격은 저장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로 저장물량 출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을감자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9.5% 감소(1,684ha)하여 전년 대비로는 크게 감소하나, 평년 대비로는 많을 것으로 전망

## 1.4.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5~2019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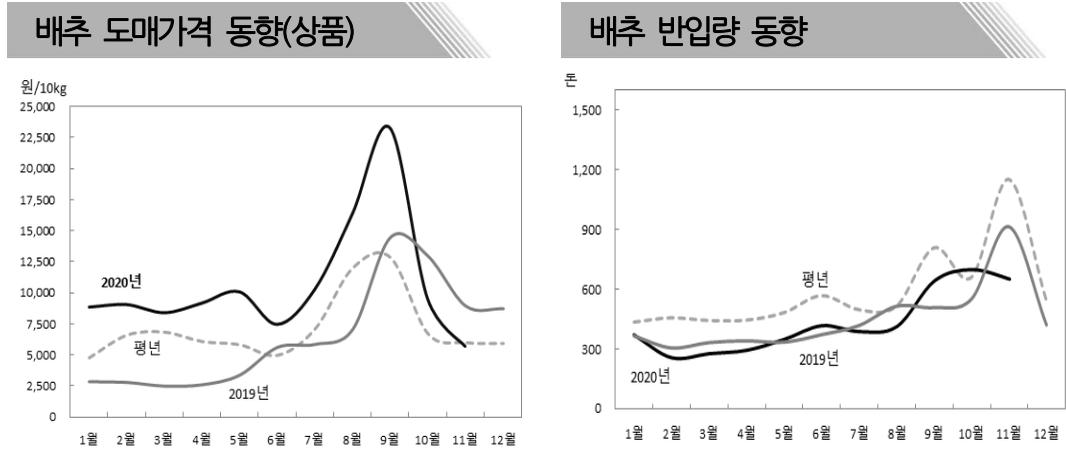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2020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3.1% 상승한 99.5임.
  - 주요 곡물 주산지 기상악화 및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이 3/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미국산 곡물 수출 호조, 주요 곡물 주산지 건조한 날씨 영향 등으로 2020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6% 상승한 115.0로 전망됨.
  - 11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sup>2)</sup>는 -0.24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 그러나 곡물 주산지 기상악화 및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함.

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 2. 엽근채소<sup>3)</sup>

### 2.1. 배추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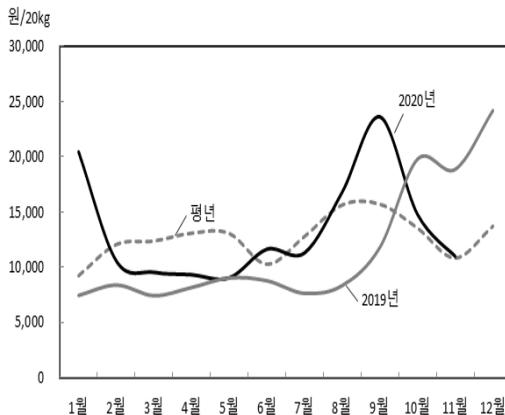
- 2020년 3분기 동향
  - 3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16,60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2.2%, 55.9% 상승)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작황 부진으로 가격 크게 상승
    - \* 2020년 가격: (7월) 10,240원/10kg, (8월) 16,320원, (9월) 23,260원
    - \* 3분기 가격: (2020년) 16,600원/10kg, (2019년) 9,110원, (평년) 10,650원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가을배추 생산량 130만 5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2%, 0.6% 증가)
    - \* 재배면적 13,13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8%, 5.2% 증가)
    - \* 단수 9,939kg/10a (전년 대비 2.8% 증가, 평년 대비 4.4% 감소)
    - \* 정식기 잦은 비, 태풍 피해 등으로 평년 대비 작황 부진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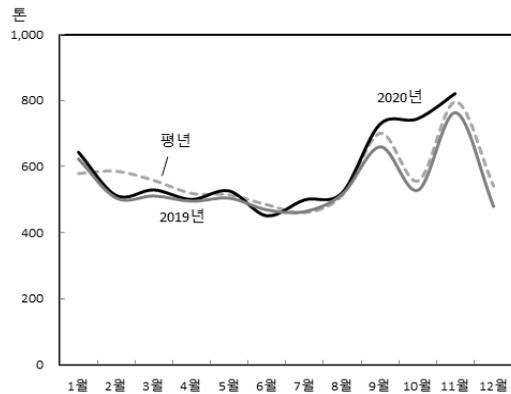
- 4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대비 6.9% 증가, 평년과 비슷
- 4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10,190원/10kg) 대비 하락, 평년(4,740원)과 비슷
- 2020년산 겨울배추 생산 전망
  - 2020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29만 5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0%, 1.5% 증가)
    - \* 재배면적 3,88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7%, 3.6% 증가)
    - \* 단수 7,592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2.1% 감소)
    - \* 늦은 정식과 큰 일교차로 생육 다소 부진, 1월 중순 본격 출하

##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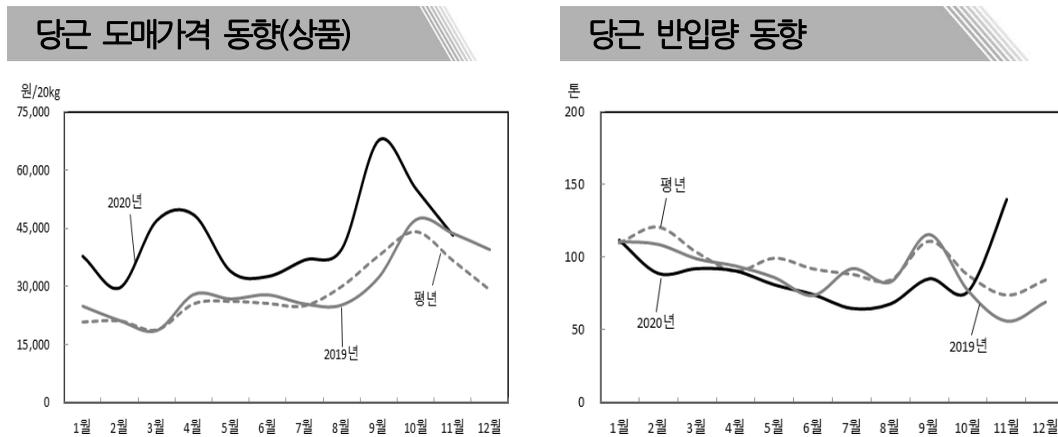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3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7,25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6.4%, 19.4% 상승)
  - 기상여건 악화로 고랭지무 작황 부진하여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0년 가격: (7월) 11,320원/20kg, (8월) 16,810원, (9월) 23,610원
    - \* 3분기 가격: (2020년) 17,250원/20kg, (2019년) 9,250원, (평년) 14,450원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가을무 생산량 43만 7천 톤(전년 대비 7.9% 증가, 평년 대비 1.4% 감소)
    - \* 재배면적 5,710ha (전년 대비 6.8% 증가, 평년 수준)
    - \* 단수 7,653kg/10a (전년 대비 1.0% 증가, 평년 대비 1.1% 감소)
  - 4분기 무 출하량 전년 대비 15.7% 증가, 평년 수준
  - 4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20,960원/20kg) 대비 하락, 평년(12,681원)과 비슷
- 2020년산 월동무 생산 전망
  - 2020년산 월동무 생산량 34만 8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 4.1% 증가)
    - \* 재배면적 5,912ha (전년 및 평년 수준)
    - \* 단수 5,865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 3.4% 증가)
    - \* 월동무 작황 평년 대비 양호하며, 12월부터 본격 출하

## 2.3. 당근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3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48,15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4.2%, 55.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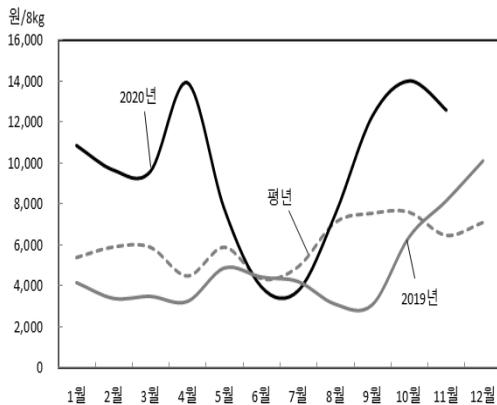
- 저장봄 및 고랭지당근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0년 가격: (7월) 36,880원/20kg, (8월) 39,740원, (9월) 67,830원
  - \* 3/4분기 가격: (2020년) 48,150원/20kg, (2019년) 27,640원, (평년) 31,010원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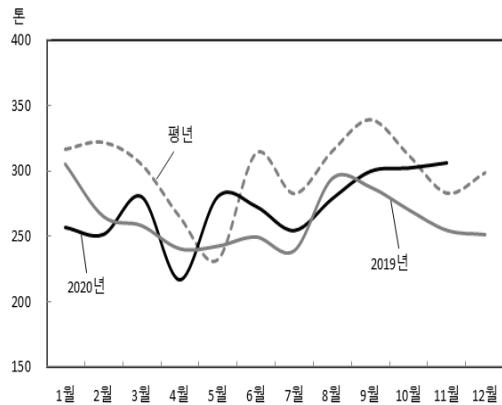
- 2020년 가을당근 생산량 6천 9백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1%, 11.2% 감소)
  - \* 재배면적 22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8%, 2.4% 감소)
  - \* 단수 3,042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 9.0% 감소)
  - \* 작황은 7~8월 집중호우로 평년 대비 부진
- 2020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5만 4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8.0%, 9.5% 증가)
  - \* 재배면적 1,37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4%, 0.2% 증가)
  - \* 단수 3,929kg/10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5%, 9.3% 증가)
  - \* 겨울당근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하며, 11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 예정
- 4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2%, 2.6% 증가
- 4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43,500원/20kg) 및 평년(36,690원) 대비 하락

##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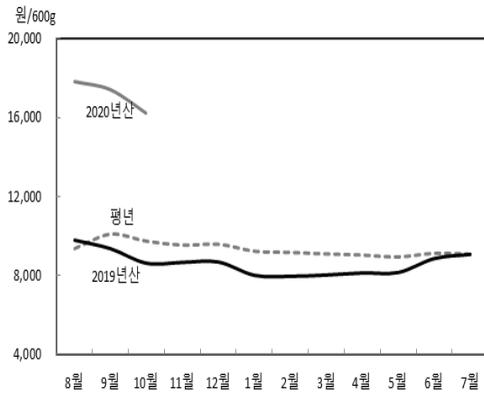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3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7,86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6.6%, 20.6% 상승)
  -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0년 가격: (7월) 3,770원/8kg, (8월) 7,510원, (9월) 12,290원
    - \* 3/4분기 가격: (2020년) 7,860원/8kg, (2019년) 3,470원, (평년) 6,520원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가을양배추 생산량 3만 톤 (전년 대비 4.1% 증가, 평년 대비 1.9% 감소)
    - \* 재배면적 734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8%, 11.2% 증가)
    - \* 단수 4,083kg/10a (전년 대비 3.3% 증가, 평년 대비 11.8% 감소)
    - \* 충청지역 작황은 7~9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부진하나, 호남은 양호
  - 4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4%, 5.8% 감소
  - 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8,230원/8kg) 및 평년(7,040원) 대비 상승
- 2020년산 겨울양배추 생산 전망
  - 2020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16만 3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8%, 12.3% 증가)
    - \* 재배면적 2,96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6%, 4.6% 증가)
    - \* 단수 5,502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4%, 7.3% 증가)
    - \* 작황은 평년 대비 양호, 12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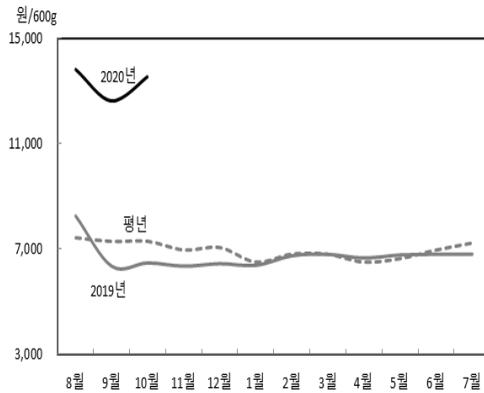
### 3. 양념채소4)

####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주 1) 평년 가격은 2015년 8월~2020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산지 가격은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거래 가격임.  
 3) 8월 도매가격은 햇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2020년산 건고추(화건) 3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산지 재고 부족과 작황 저조로 전평 대비 각각 57%, 54% 상승
  - 산지 3분기 평균 반입량은 전년 동기(583톤)보다 11% 감소
    - \* 평균 도매가격: (금년) 14,768원/600g, (전년) 10,103원, (평년) 9,393원
    - \* 평균 산지가격: (금년) 11,081원/600g, (전년) 7,738원, (평년) 7,187원
    - \* 평균 산지반입량: (금년) 518톤, (전년) 583톤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신성철 전문연구원(ssc0729@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참고 자료〉

■ 2020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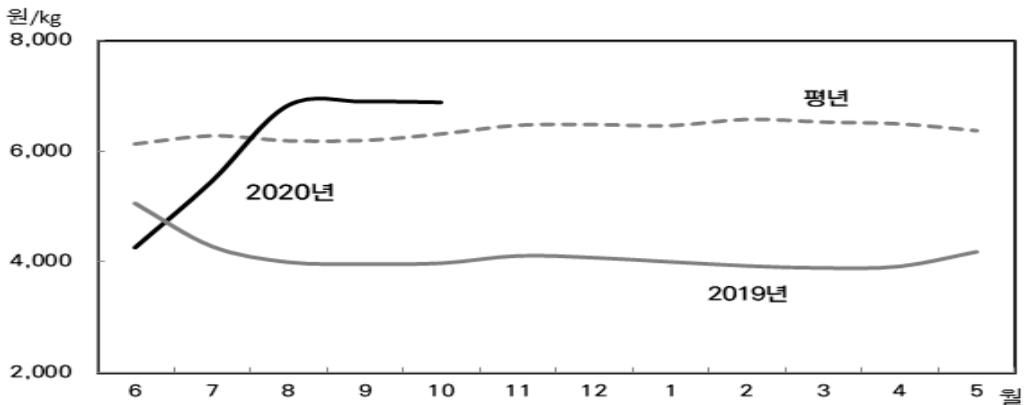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0		31,146	192	59,808
2019		31,644	248	78,437
평년		30,883	254	78,468
증감률	전년	-1.6	-22.6	-23.8
	평년	0.9	-24.4	-23.8

자료: 통계청, 2020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김장철 영향으로 평년 대비 67% 높은 16,244원이며, 산지가격도 평년보다 86% 높은 13,555원
  - 2020년 건고추 4분기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7,089원/600g)보다 높을 전망

### 3.2. 마늘

####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평년 가격은 2015년 6월~2020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57%, 3% 높았음.
  -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6,392원/kg, (전년) 4,077원/kg, (평년) 6,232원/kg
  - \* 월별 도매가격: (7월) 5,452원/kg, (8월) 6,826원/kg, (9월) 6,897원/kg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깐마늘 가격은 전년(3,973원)보다 73% 높은 6,883원/kg
  - 11월 마늘 가격은 저장·가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김장 수요 감소로 10월과 비슷할 전망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20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2% 적은 7만 8천 톤 내외 추정

###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0	104,783	22,069	78,381
2019	105,289	21,592	79,680
평년	107,000	20,000	83,607
전년 대비	-0.5	2.2	-1.6
평년 대비	-2.1	10.3	-6.3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0년산 5.2%, 2019년산 4.8%, 평년 3.9%)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  
 2)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및 TRQ는 미포함.  
 3)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1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 2021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5% 감소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0. 27.), 2021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20년산 남도종 및 한지형 마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5% 감소 전망

- \* 남도종 마늘 주산지인 제주는 9월 이후 연이은 태풍으로 파종 지연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전남은 양파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 확대
- 농업관측본부 조사결과를 반영한 2021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3,980ha 내외 추정

### 2021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8.6	-7.5	-6.5	-6.1	-	-6.6
난지	-7.7	-6.0	-11.7	-1.2	-9.9	-5.7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7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21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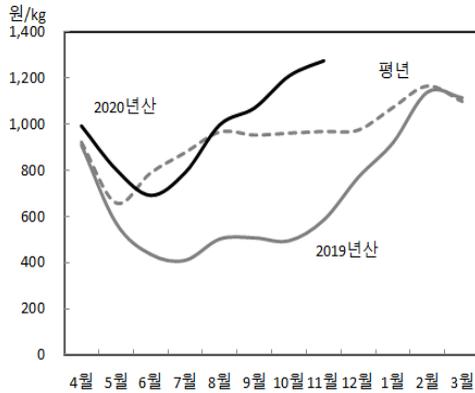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21	23,981
2020	25,372
평년	25,975
전년 대비	-5.5
평년 대비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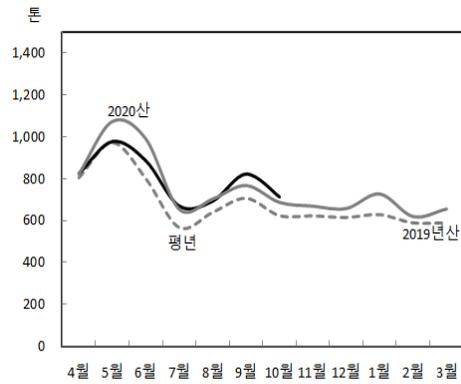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통계청

###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4월~2019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3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상품 kg당 953원
  - 3분기 양파 일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728톤
  - \* 3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7월) 669톤, (8월) 693톤, (9월) 822톤
  
- 2020년 4분기 가격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210원으로 전년(495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
  - 1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585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2020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6% 적은 67만 2천 톤 내외로 추정
  - 10월 말 기준 출고량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출하 증가하여 전년 대비 1% 증가한 15만 8천 톤 내외로 추정

- 부패율을 감안한 10월 말 기준 재고량은 45만 톤으로 전년보다 8% 적은 것으로 추정

### 2020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10월말 기준)

단위: 천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0	672	158	450
2019	712	157	491
평년	620	146	430
전년 대비	-5.6	0.6	-8.2
평년 대비	8.4	8.4	4.8

주: 2019년산 입고량은 정부 비축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며, 재고량(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0년산 12.4%, 2019년산 11.6%, 평년 10.1%)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21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
  - 2021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 대비 7% 내외, 중만생종은 1%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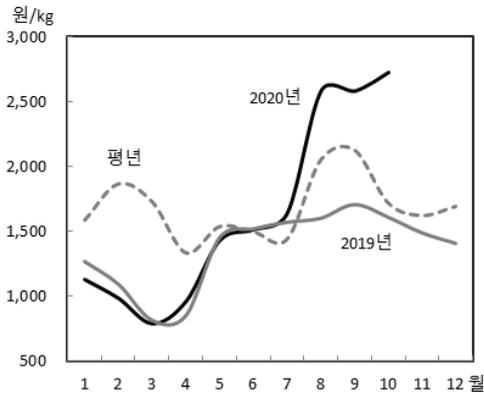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19	2,874	15,339	18,213
2018	2,683	15,247	17,930
평년	2,880	17,524	20,404
전년 대비	7.1	0.6	1.6
평년 대비	-0.2	-12.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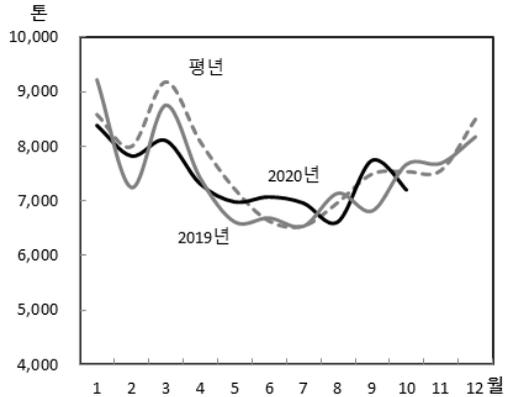
주 1) 2020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 결과임.  
 2) 2021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1월~201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분기 동향
  - 대파 3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270원(중품 1,85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0%, 21% 상승
    - \* (금년) 2,269원/kg, (전년) 1,625원, (평년) 1,876원
    - \* (7월) 1,640원/kg, (8월) 2,585원, (9월) 2,583원
  - 7~9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경기와 강원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 2% 증가
- 2020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대파 출하량 감소로 전년(1,610원)보다 높은 2,730원
  - 4분기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기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9~12월 재배의향면적(내년 4~6월 출하)은 출하기 가격상승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및 금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9% 감소

### 9~12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청	호남(전북)	영남	전체
3.1	-	4.4	3.9	-4.0	2.6

자료: 농업관측본부

###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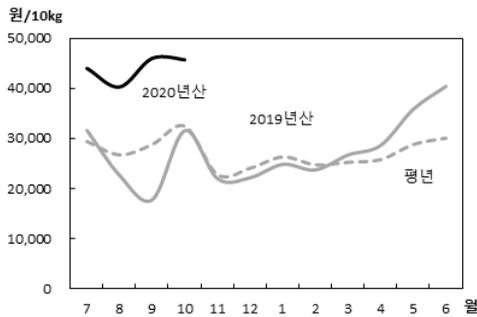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7.3	-9.6	-12.9	-8.1	-8.8
평년	2.0	-11.5	-10.8	5.0	-4.6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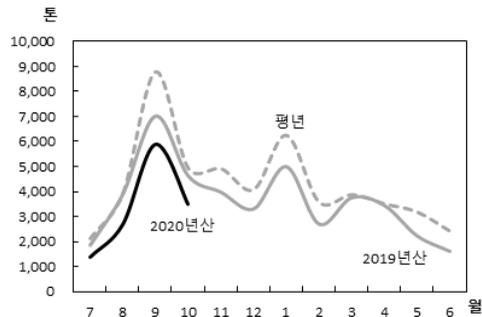
## 4. 과일5)

###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20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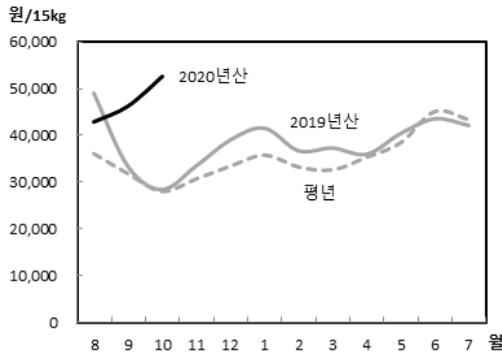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7~8월 쓰가루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온 피해로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56%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2,200원이었음.
  - 9월 홍로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60% 높은 46,100원이었음. 저온 피해와 9월 연이은 태풍(마이삭, 하이선)으로 추석 성수품인 홍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폭이 컸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45% 상승한 상품 10kg 상자에 45,800원이었음.
  - 11월, 12월 이후 사과 출하량도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17% 적을 것으로 전망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oon0712@krei.re.kr), 윤성주(jsj0811@krei.re.kr), 노수경(nosu303@krei.re.kr), 홍승표(h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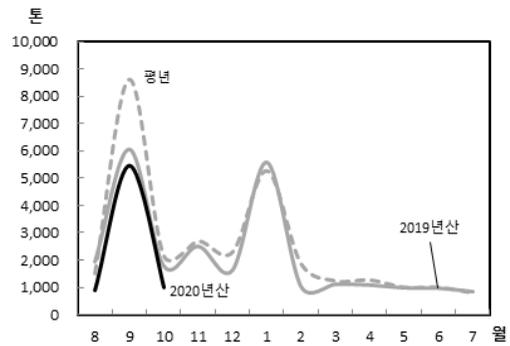
- 2020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22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됨.
- 2020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5만 2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 감소하였고, 저온 피해와 작황 부진, 태풍 피해 등으로 단수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20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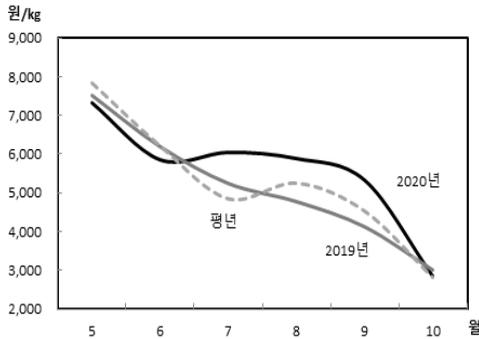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8월 원황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산 저장 배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로 전년 대비 12%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3,000원이었음.
  - 9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봄철 저온 피해 및 생육 부진으로 반입량이 감소(전년 대비 10%)하여 전년 대비 39%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6,4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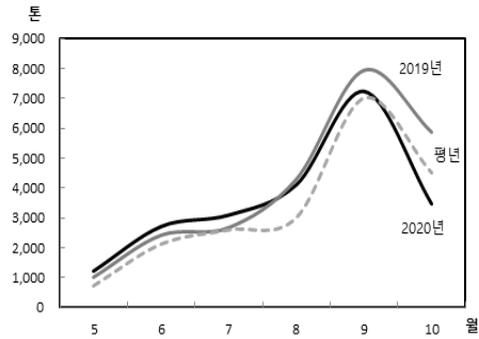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17.~9.30.)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상품 7.5kg 상자에 3만 5,100원이었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6% 상승한 상품 15kg 상자에 5만 2,800원이었음. 올해 배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내년 설 명절 출하 위해 대과 및 상품과 위주로 저장한 농가가 많아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 올해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저장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저장 의향이 높으나,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9%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26%,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생산량 전망
  - 2020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적은 15만 7천 톤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단수가 17% 줄 것으로 전망됨. 개화기 냉해로 인한 기형과 발생 및 태풍으로 인한 상처과 발생이 많아 비상품과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 4.3. 감귤

하우스온주 도매가격 동향



하우스온주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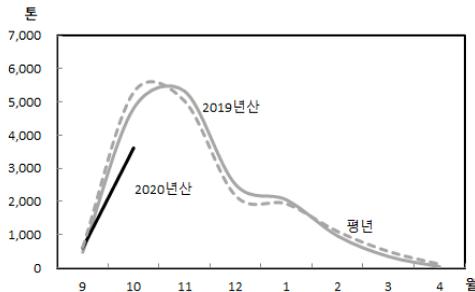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25% 높은 kg당 5,640원이었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460원) 대비 2% 하락한 kg당 1,430원이었음. 상순 가격은 1,890원/kg으로 전년 대비 높았으나, 중순 이후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음.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극조생온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조생온주 착색이 양호해 출하를 앞당기려는 농가가 늘어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 출하량도 조생온주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51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으나, 과 비대기 적절한 강우로 과실

비대가 양호하고 해거리(제주시 중심)로 착과수도 많아 단수가 5% 많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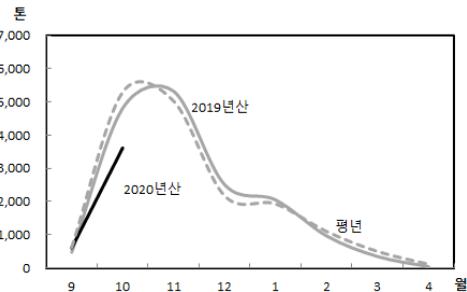
- 전년 생육기 기상여건 악화로 비상품과가 많았던 전년 대비 상품과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20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주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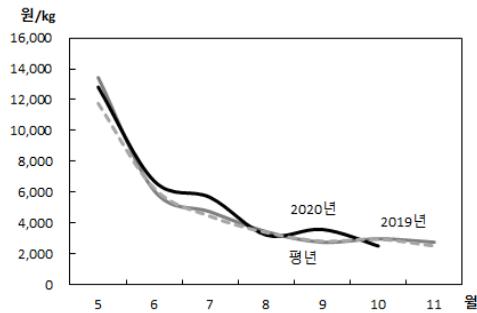
자료: 서울사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9월 서촌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500원으로 전년 대비 34% 하락함. 반입량이 감소하였지만, 상품성 좋은 상서·이두·태추 출하량이 증가하였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감소하였지만, 태풍으로 외관이 좋지 않고 당도도 낮아 전년 대비 2%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000원이었음.
  - 11월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1% 적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에도 농가의 저장의향 감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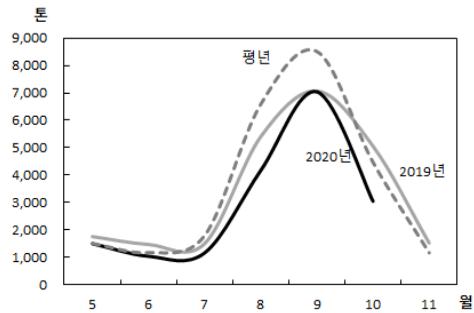
- 2020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8만 8천 톤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며, 일조량 부족으로 과실 비대가 부진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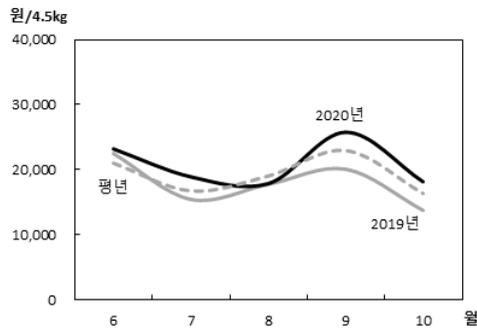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사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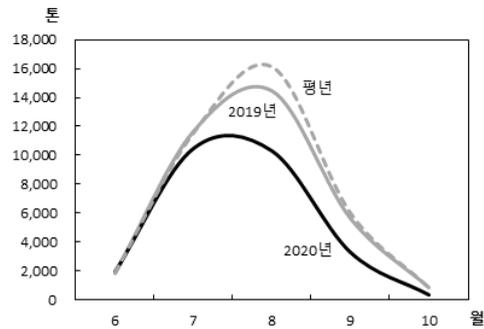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7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상품 2kg 상자에 11,300원으로 전년 대비 20% 높았으며, 8~9월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높았음.
- 2020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7% 적은 13만 6천 톤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MBA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31%, 22%, 17% 적을 것으로 추정됨. 샤인머스켓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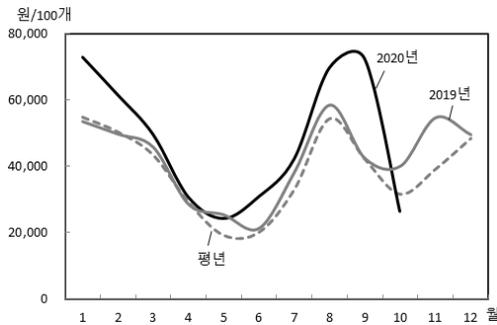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10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7월 백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10%)로 전년 대비 22% 높은 상품 4.5kg 상자에 18,900원이었음. 8월 천중도백도 반입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잦은 강우로 품질이 좋지 못하여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한 17,900원이었음.
  - 9월 엘버트 도매가격은 긴 장마로 반입량이 29% 감소하여 전년 대비 28% 상승한 25,800원이었음.
- 2020년 생산량 추정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17만 3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저온피해 및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단수가 17% 줄 것으로 파악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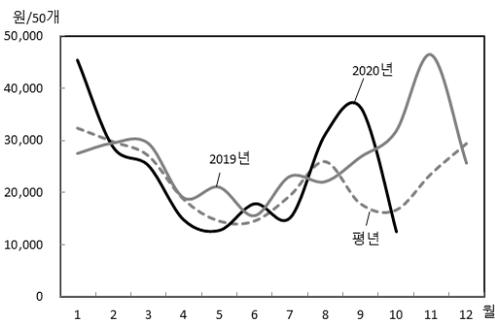
## 5. 과채6)

###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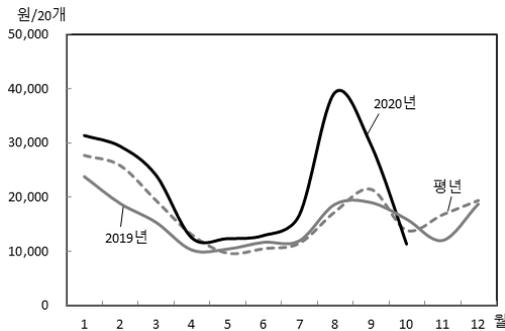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4만 2,200원, 8월 6만 9,800원, 9월 7만 2,5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6만 1,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상승하였음.
- 3/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7월 1만 5,100원, 8월 3만 1,200원, 9월은 3만 6,2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7,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하락하였음.
- 3/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경기와 충청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연옥(superior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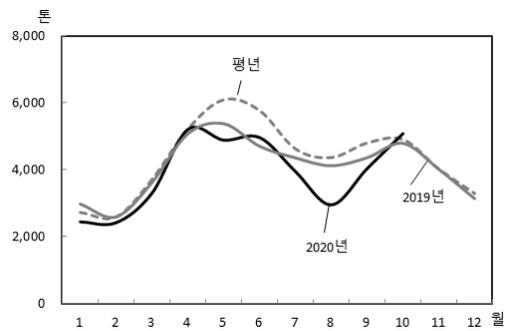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34% 낮은 상품 100개에 2만 6,400원이었음.
  - 11~12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과 전남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61% 낮은 상품 50개에 1만 2,400원이었음.
  - 11~12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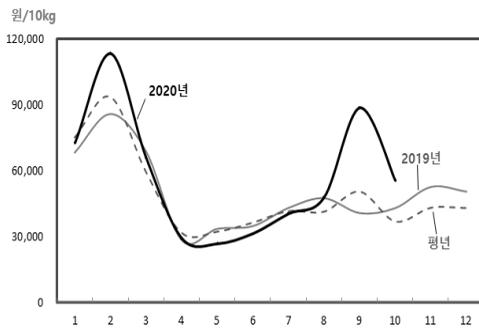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1만 6,700원, 8월 3만 9,200원, 9월에는 2만 9,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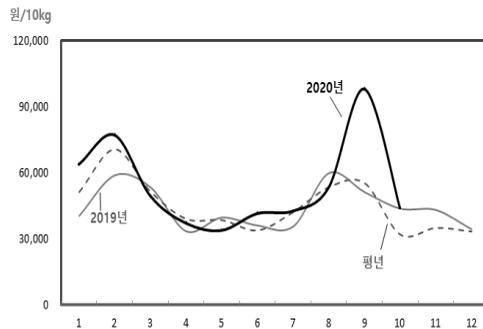
- 3/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하였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28% 낮은 상품 20개에 1만 1,400원이었음.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과 경남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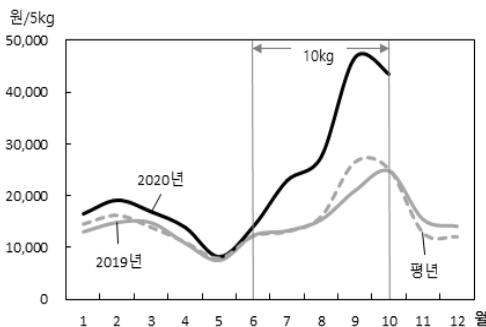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0년 3/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500원, 8월 4만 7,900원, 9월 8만 8,6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35% 높은 5만 9,000원이었음.
  - 3/4분기 청양계풋고추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낙화, 병해로 착과량이 감소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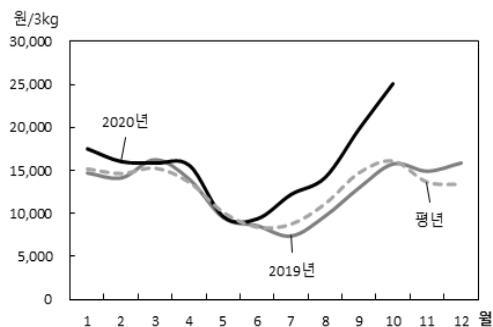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2,800원, 8월 5만 3,500원, 9월 9만 8,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33% 높은 6만 4,900원이었음.
- 3/4분기 일반풋고추 가격이 상승한 것은 병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풋고추에서 청양계풋고추로 작목이 전환되어 면적이 감소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낙화, 병해가 확산되면서 착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0%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5만 5,600원이었고,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4,200원이었음. 이는 강원지역에서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였고, 호남지역에서 인력 부족으로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11~12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에서 작황이 회복되었고, 경남지역도 작황이 전년보다 좋고 출하시기도 빨라져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일반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과 경남지역에서 정식 면적이 줄었으나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 증가가 전망됨.

## 5.4.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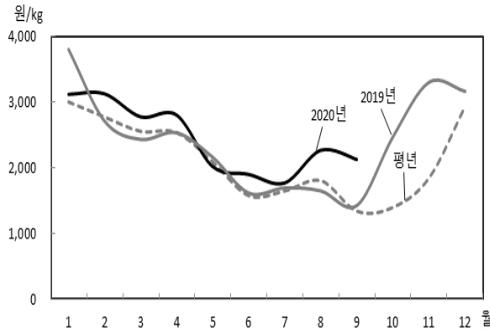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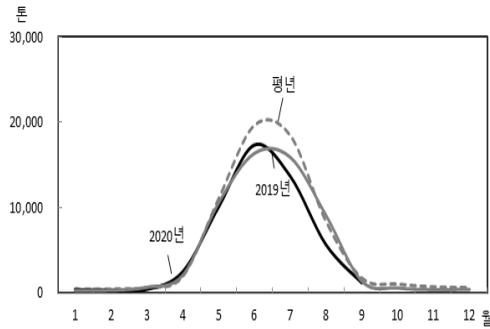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에 7월 22,900원, 8월 27,400원, 9월 46,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32,400원으로 전년 대비 95% 상승하였음. 이는 출하면적 감소와 장마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3분기 반입량이 전년 대비 8%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3kg에 7월 12,200원, 8월 14,200원, 9월 19,8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5,400원으로 전년 대비 53% 상승하였음. 장마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3분기 반입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하였음.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76% 높은 43,700원/10kg이었음.
  - 11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12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의 출하 조기종료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10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56% 높은 24,700원/3kg이었음.
  - 11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2월 출하면적은 충청과 호남지역의 조기정식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5.5.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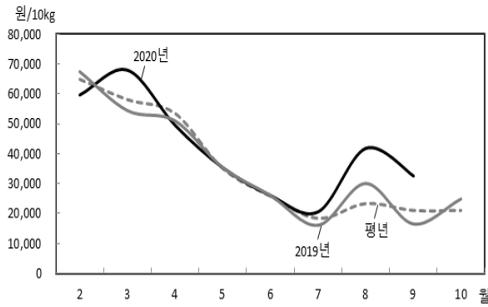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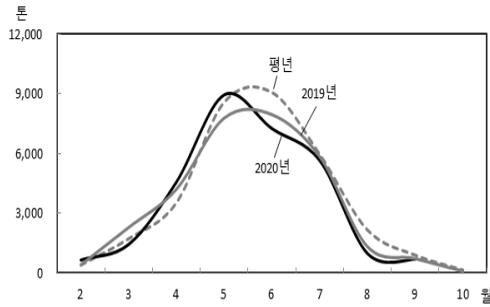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770원, 8월 2,270원, 9월 2,12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0% 높은 2,050원이었음.
  - 수박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하였음.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컸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수정이 불량하고 과 비대가 부진한 등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020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50% 높은 상품 1kg에 2,470원이었음. 호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11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정식면적이 확대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출하면적은 잦은 비로 인한 정식시기 지연으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2만 500원, 8월 4만 1,800원, 9월 3만 2,5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3만 1,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높았음.
  - 참외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음. 긴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조기 폐원한 농가가 증가하였고, 전년보다 병충해 피해가 커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5.7. 딸기

- 2020년 딸기 정식면적
  - '20/'21년 딸기 정식면적은 잦은 비와 고온 지속 등 기상악화로 정식을 늦추려는 농가가 늘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음.
  - 월별로는 전년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온으로 정식시기를 늦추려는 농가가 늘어 8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9월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20년 4/4분기 전망
  - 11월 출하량은 기상악화,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 등으로 정식시기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출하면적은 정식시기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6. 축산7)

###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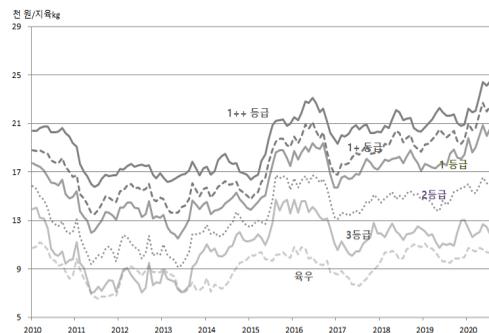
####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기구

구분	19년			20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p
사육 농장수	95	94	94	94	93	93
총 마릿수	3,242	3,269	3,237	3,197	3,383	3,396
가임 암소	1,426	1,480	1,491	1,462	1,487	1,550

주: 2019년 9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2020년 3/4분기 동향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338만 3천 마리)보다 0.4% 증가한 339만 6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26만 9천 마리보다 3.9% 증가).
  -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323만 7천 마리, 육우 15만 5천 마리
  - \* 가임암소 마릿수 155만 마리(전년 동월 148만 마리 보다 4.7% 증가)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서강철(softvalue@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3/4분기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전 분기 20,041원/지육kg보다 1.7% 상승한 20,387원이었음(전년 동기 18,098원보다 12.7%, 평년 동기 18,034원보다 13.0% 상승).

- (한우)4/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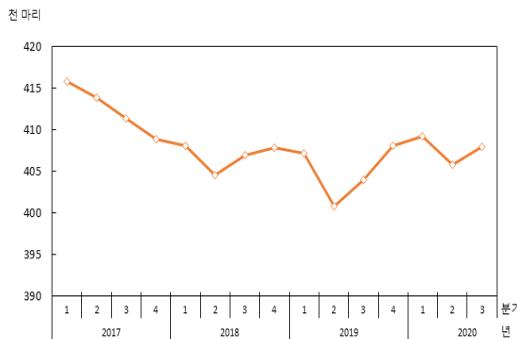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07만 8천 마리)보다 4.0% 증가한 320만 2천 마리로 전망됨.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상승한 18,500~19,500원으로 전망됨.

###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9년(A)	2020년	2020년(B)	B/A
사육 마릿수	12월 307만 8천 마리	9월 323만 7천 마리	12월 320만 2천 마리	4.0%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4분기 18,341원	3분기 20,387원	4분기 18,500~19,500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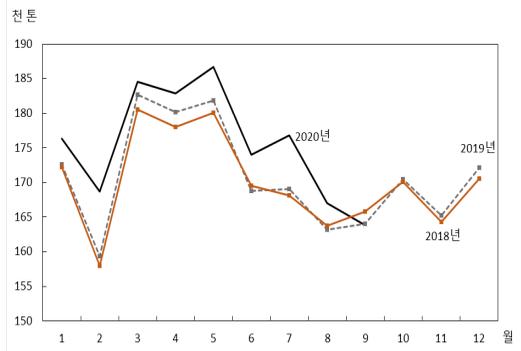
## 6.2. 젖소

###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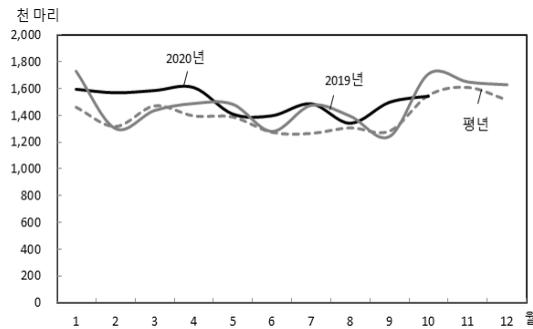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0년 3/4분기 동향
  -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40만 8천 마리였음.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50만 8천 톤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4/4분기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5~1.0% 감소한 40만 4천~40만 6천 마리로 전망됨.
  -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9~1.3% 증가한 51만 3천~51만 5천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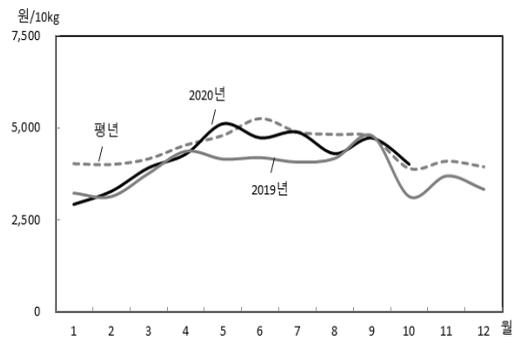
### 6.3. 돼지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돼지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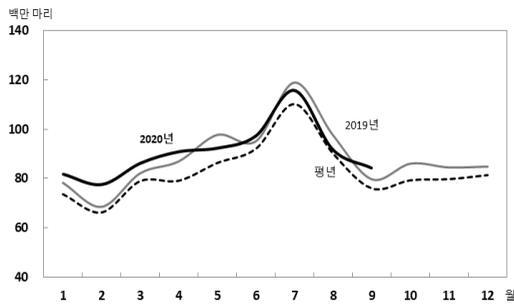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0년 3/4분기 동향
  - 2020년 9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4.1% 감소한 96만 3천 마리였음. 모든 감소에 따른 자돈 생산 감소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5.0% 감소한 1,181만 마리임(이력제).
  - 3/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일령 단축으로 도축이 늘어 전년 동기간(411만 마리)보다 증가한 432만 마리였음.

-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 소비 증가로 전년 동기(4,349원/kg)보다 상승한 4,640원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모든 감소로 자돈 생산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한 475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7만 톤으로 전망됨.
  - 4/4분기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로 전망됨(10월 4,015원, 11~12월 3,700~4,000원) 단,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소비 침체 시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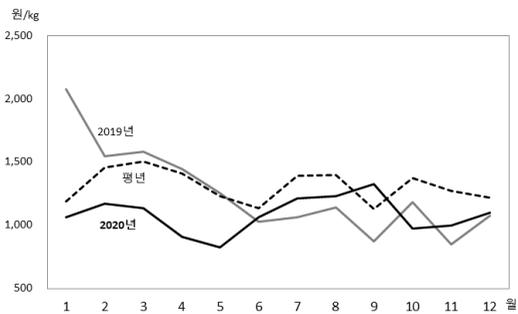
##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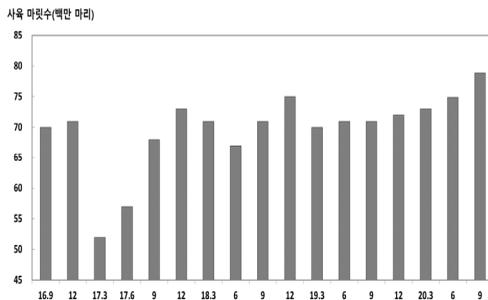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20년 3/4분기 동향
  - 3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병아리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74만 마리로 추정됨.
  - 3분기 도계 마릿수는 삼계 및 토종닭 입식 감소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 감소한 2억 9천 2백만 마리였음.

- 3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상승한 1,254원/kg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성계 사육 마릿수가 많고 종계 생산성도 전년 및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1.2% 많은 수준인 2억 5천 8백만 마리로 예상됨.
  - 10월 육계 산지 가격은 일평균 도계 증가로 전년 대비 18.6% 하락한 963원/kg이었음. 11~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일평균 도계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하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됨(11~12월: 1,000~1,2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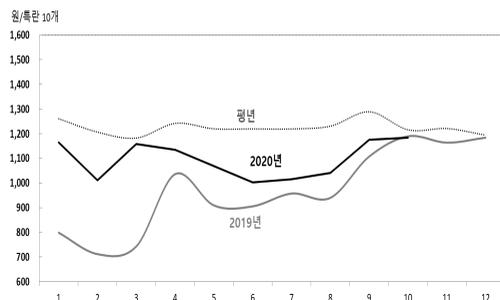
##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020년 3/4분기 동향
  -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한 7,885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전년보다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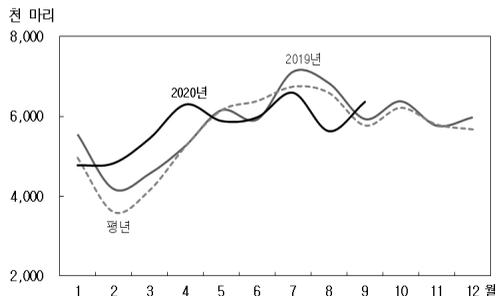
- 3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971만 마리)보다 감소, 평년(649만 마리)보다 증가한 942만 마리였음.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성계 도태 감소로 전년보다 증가함.
- 7~9월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가정내 소비 증가로 전분기보다 상승한 1,077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1~12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입식 늘고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육 마릿수 늘어 계란 생산량 증가로 11~12월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10월: 1,183원/특란 10개, 11월: 1,050~1,150원, 12월: 1,000~1,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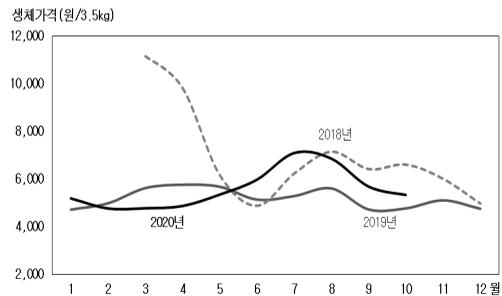
## 6.6. 오리

### 오리 도입 마릿수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0년 3/4분기 동향

-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928만 6천 마리임. 육용오

리와 종오리는 전년 대비 각각 3.4%와 12.9% 감소한 853만 5천 마리와 75만 1천 마리임.

- 도압 마릿수는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이 줄어 2019년 3/4분기 대비 6.4% 감소한 1,860만 5천 마리임. 3/4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25.6% 상승한 6,536원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12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산란 종오리 규모 감소,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감소,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1~12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5,000~5,500원/생체 3.5kg으로 전망됨.

# IV.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sup>8)</sup>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간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6	77.6
	4~5명 이하	42	12.7
	6명 이상	32	9.7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옥소연(syock1101@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sup>2</sup>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sup>2</sup> 이하 19.7%, 300m<sup>2</sup>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7.6%로 가장 많음.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2.1. 경기 현황 조사

- 2020년 3/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14(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70) 대비 하락하였고, 전 분기(2.39) 대비 하락함.

####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9년 3/4분기	2020년 2/4분기	2020년 3/4분기
2.70	2.39	2.14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7~9월(코로나19 확산 후) 음식점 매출은 2019년 7~9월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79.67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후 매출이 20% 수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4/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0년 3/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88.70으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2. 곡류

- 2020년 3/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4.3%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0.5% 증가함.
  - 감자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하였고, 전 분기와 0.1 상승하였음.

### 곡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34.3	0.5	-2.9	0.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4/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3/4분기)에 비해 각각 38.2%,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곡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38.2	-3.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3. 채소류

- 2020년 3/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24.9%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5~8.0% 감소하고, 양념채소 월평균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0.1~5.2% 감소하였으며, 양파는 14.3% 감소함으로써 큰 감소폭을 보임.

###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6.4	건고추	-0.1
배추김치	-7.9	고춧가루	-2.1
무	-8.0	마늘	-3.2
당근	-3.6	양파	-14.3
양배추	-3.5	대파	-5.2
소계	-29.4	소계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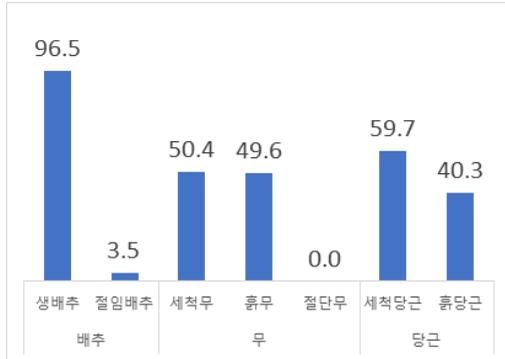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0%), 배추(96.5%), 양파(86.7%)이며,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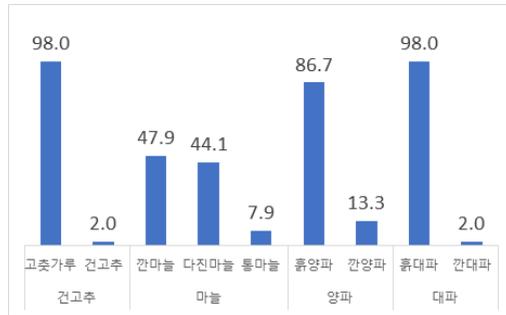
〈엽근채소〉

단위: %



〈양념채소〉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3/4분기		2020년 3/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2	0.8	98.59	1.41
	배추	99.4	0.6	98.99	1.01
	배추김치	13.4	86.6	11.04	88.96
	당근	61.8	38.2	55.56	44.44
	양배추	98.6	1.4	87.94	12.06
양념채소	건고추	65.8	28.9	82.50	17.50
	고춧가루	57.0	42.9	49.30	50.66
	통마늘	94.4	5.6	79.17	20.83
	간마늘	58.3	41.7	51.62	48.38
	다진마늘	60.8	39.2	49.70	50.30
	훈양파	89.3	10.7	88.91	11.09
	간양파	47.4	52.6	48.36	51.64
	대파	100.0	0.0	99.84	0.1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김치, 고춧가루, 다진마늘, 깐양파의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8.9%), 깐양파(51.6%), 고춧가루(50.6%), 다진마늘(50.3%), 깐마늘(4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는 전체 구매의 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고춧가루, 다진마늘은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감소함.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0년 3/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1.0%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6.8%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9.0%로 조사되었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79.8%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감소(20.2%)’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고객 감소(78.4%)’가 가장 높았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는 ‘안 함(83.8%)’이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한 중국산 김치 소비량

단위: %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증가	비슷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감소
0	79.8	20.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

단위: %

고객 감소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78.4	16.2	5.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안 함	각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단무지 제공
83.8	8.1	8.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4/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4/4분기)에 비해 각각 36.2%, 2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0.1%~5.7%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양파의 구매량은 17.8%로 큰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8.3	건고추	-0.1
배추김치	-9.7	고춧가루	-2.4
무	-9.5	마늘	-2.9
당근	-4.5	양파	-17.8
양배추	-4.2	대파	-5.7
소계	-36.2	소계	-28.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4. 과채류

- 2020년 3/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
  - 풋고추와 오이,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5%, 3.6%, 1.9% 감소하였음.

##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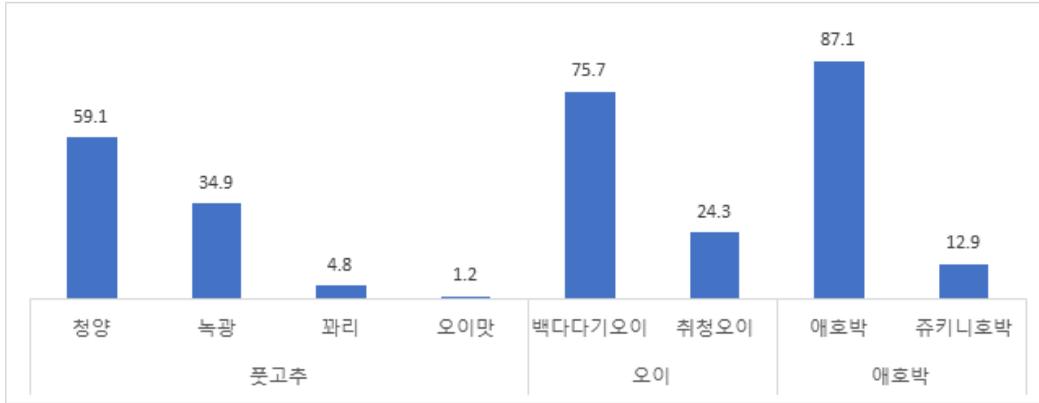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1.5	-3.6	-1.9	-7.0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9%), 파리고추(4.8%), 오이맛고추(1.2%)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24.3%)보다는 백다다기오이(75.7%)를, 호박은 추키니 품종(12.9%)보다는 애호박(87.1%)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4/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3/4분기)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오이, 풋고추의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9%, 4.2%,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품목	오이	애호박	소계
풋고추	-4.2	-2.1	-8.2
	-1.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5. 축산류

- 2020년 3/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8% 대폭 감소함.
  -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2%, 21.3%, 5.3%, 1.5%, 0.9 감소함.

###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5.3	-21.3	-0.9	-1.5	-127.2	-156.2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미국산은 1.0%p 증가한 반면, 호주산 구입 비중은 0.1%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6.0%로 전년 동기 대비 6%p 감소하였으며, 미국산, 칠레산은 각각 3.0%p, 0.8%p, 0.5%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2.9%, 1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3/4분기					2020년 3/4분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10.5		72.2		17.4	9.39		72.16		18.4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돼지고기	72.0	8.6	5.8	10.6	1.7	66.00	12.22	6.52	11.48	1.52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닭고기	81.1	7.8	10.0	1.0		82.99	6.70	9.28	1.03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오리고기	95.8		4.2			100.00		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4/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4/4분기)에 비해 15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의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5.0%, 24.1%, 6.4%, 1.5%,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6.4	-24.1	-0.9	-1.5	-125.0	-157.9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6. 기타

- 2020년 3/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 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9.3%)’,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6.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1.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9.3%)’, ‘단가가 저렴해서(0.2%)’ 순으로 나타남.

###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3.5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9.3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6.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1.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9.3
단가가 저렴해서	0.2
소계	1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27.9%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2.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2.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6.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10.6%)’ 순으로 나타남.

###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27.9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2.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2.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6.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0.6
없음	0.3
소계	1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9.1%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수박이 4.2%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46.2%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수박	4.2	사과	1.5
참외	3.9	방울토마토	1.5
오렌지	2.4	수입포도	1.2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0.9%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46.2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30.8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23.1
소계	1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후(2020년 7~9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7~9월) 보다 약 19%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월평균 구매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후 쌀, 채소 및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81.9%,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81.0%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오' 응답이 99.4%로 '예(0.6%)'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2.7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9년 3/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9.4%, 24.9% 감소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7.0%, 156.2%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 후(2020년 7~9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7~9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간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간양파,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비슷하다는 의견이 79.8%로 가장 높았고, 감소했다는 의견은 20.2%에 달하였다. 감소의 이유로는 고객 감소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83.8%가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임.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3.5%)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력부족(19.3%),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6.0%), 재고관리 철저(11.8%)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27.9%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2.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2.4%),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6.1%),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10.6%) 순으로 조사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9.1%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수박, 참외, 오렌지, 사과, 방울토마토, 수입포도 순으로 나타남.



## 특별주제

- ①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②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③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과 정책 과제
- ④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sup>1)</sup>

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 1. 대체식품의 정의 및 성장 요인

### 1.1. 대체식품의 정의 및 성장 요인

- 대체식품이란 동물 단백질을 대체한 식품으로, 식물성대체식품, 곤충단백질 대체식품, 배양육 등
  - 대체식품 유형은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배양육 총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식물성대체식품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 계란 등 축산식품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또는 소재)으로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유제품 및 음료 등이 있음.
  - 곤충단백질 대체식품은 식용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으로, 통곤충, 사료·펫푸드, 곤충분말제품, 단백질바·셰이크 제품, 곤충쿠키 등이 있음.
  - 배양육은 살아 있는 동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실내에서 키워내는 식용 고기를 의미함. 배양육의 맛은 근세포, 지방세포, 섬유아세포로 조절 가능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를 정리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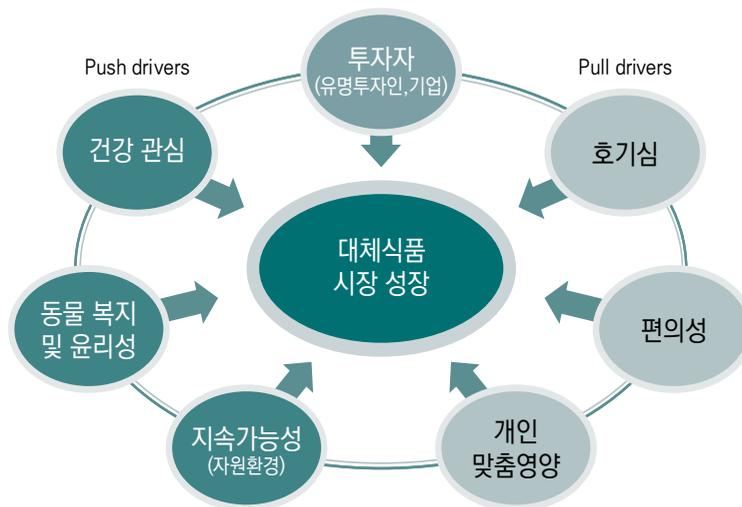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s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ih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yslee@krei.re.kr)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한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여기에 유명투자인 및 기업의 투자가 세계 대체식품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대체식품 시장 성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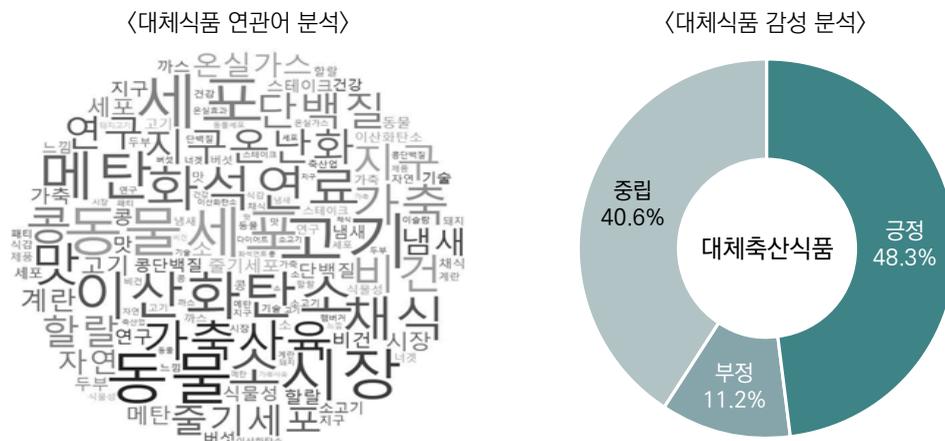


자료: Meticulous Research(2019: 3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2. 대체식품에 대한 국내 수요

- 국내에서도 최근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
  - 2019년 상반기 국내 식품산업 관련 소셜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체식품 관련 키워드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언급되어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뿐만 아니라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병됨에 따라 가축질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살처분 등에 따른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로 확대되면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 대체식품 관련 빅데이터 분석(연관어 분석, 감성 분석) 결과



자료: 황윤재(2019).

- 국내에서도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 먹거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하여 단백질 급원인 육류의 소비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식품의 개발은 자원절약·환경오염 축소의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sup>5), 6)</sup>

- 축산업이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가축 사육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대체식품은 채식주의자 등 소수자 수요에 대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고, 소수자에 국한된 협소한 국내 시장 이외에도 활발한 해외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대체식품 시장의 전망은 밝음.
-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먹거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2.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전망

### 2.1. 세계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전망<sup>7)</sup>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96.2억 달러로 2019~2025년 연평균 9.5% 성장 전망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89.9억 달러, 2018년 96.2억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의 핵심기술은 식물이나 곤충에서 단백질을 추출(분리)·발효·가공하는 기술이며, 식재료와 혁신기술 발전이 융합하여 대체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대체식품 제품 유형 중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시장이 전체 시장규모의 87.2%로 압도적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22.7%)과 배양육(19.5%)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

5)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인구가 2018년 76억 4천만 명에서 2050년 92억 명으로 연간 0.6% 증가하여 육류 소비량이 2018년 304만 톤에서 2050년 455만 톤으로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최문화·신현재 2019: 1).

6)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325억 6,400만 CO<sub>2</sub> 상당치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함(World Watch 2009).

7) Meticulous Research(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 세계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는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우유 및 음료 등),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순으로 크며, 특히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은 전체 시장규모의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22.7%), 배양육(19.5%),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8.3%),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8.1%),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5.0%)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세계 대체식품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2017~202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비중	2019년	2025년	CAGR(%)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7,890.8	8,395.8	87.2	8,962.5	14,319.8	8.1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514.8	607.5	6.3	722.9	2,470.1	22.7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485.1	517.6	5.4	553.8	894.0	8.3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98.2	102.2	1.1	106.5	143.1	5.0
배양육	0.0	0.0	0.0	0.0	31.6	19.5
<b>전체</b>	<b>8,989.0</b>	<b>9,623.1</b>	<b>100.0</b>	<b>10,345.7</b>	<b>17,858.6</b>	<b>9.5</b>

주 1) CGAR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2) 배양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1년(15.5백만 달러)부터 2025년(31.6백만 달러)까지의 증가율임.

자료: Meticulous Research(2019: 131).

-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지역별 점유율은 북미가 44.6%로 가장 높지만, 향후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세계 대체식품 시장에서 지역별 점유 비중은 북미(44.6%), 유럽(28.8%), 아시아·태평양(18.1%), 기타(8.5%) 순으로 선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현재까지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투자, 기술개발, 소비가 모두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대체식품 시장의 향후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12.2%), 기타(11.0%), 유럽(8.7%), 북미(8.6%) 등의 순으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전망함.

## 2.2. 국내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전망<sup>8)</sup>

- 국내 식품제조업체 30개 중 대체식품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11개, 향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는 16개이며, 향후 추진 사업 분야는 식물성고기, 배양육, 곤충식품 순서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식품 관련 사업을 과거에 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이 중 2개 업체는 현재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식품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사업성 부재, 개발 투자금 부족, 연구기술 및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을 중단한 2개 업체 모두 향후 대체식품 관련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대체식품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식품 제조업체는 16개이며, 향후 추진 사업 분야는 식물성고기, 배양육, 곤충식품 순서로 나타남.
  - 식물성 고기를 이용한 만두, 떡갈비, HMR 제품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배양육 기술개발은 대학교 및 국가연구기관 이외에도 수입곡물업체 및 스타트업에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곤충식품 중에서는 곤충분말을 이용한 고령친화식품, 암환자식, 쿠키 등 간식, 펫푸드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의 유형별 시장규모는 미트볼이 32%로 가장 많고, 버거패티(21.5%), 너겟류(17.8%), 소시지(12.0%) 등의 순서임.

8) 박미성 외(2019)를 참조하여 작성함.

### 국내 대체식품(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비중	2018년	2019년	2026년	CAGR(%)
버거패티	9.7	11.8	21.5	13.8	27.3	42.7	15.4
미트볼	14.4	17.6	32.0	21.3	42.6	65.6	15.7
낫토	4.3	5.1	9.3	6.1	12.1	18.2	15.1
소시지	5.5	6.6	12.0	7.9	15.7	23.8	15.3
너겟류	7.9	9.8	17.8	11.7	23.9	39.0	16.6
<b>전체</b>	<b>47.6</b>	<b>58.0</b>	<b>100.0</b>	<b>70.1</b>	<b>140.5</b>	<b>216.0</b>	<b>15.7</b>

주: CGAR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St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2019: 183-187).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유통채널은 온라인 소매 비중이 가장 크고, 직수입 비중도 9.9%로 높음.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의 유통 채널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B2C가 49.3%이고, B2B가 33.7%임. B2C 유통채널은 온라인 소매가 가장 크고, 직수입이 다음으로 높음.
  - 국내 채식주의 인구 비중이 낮고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다양하지 못해 세계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직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음.

### 국내 대체식품(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비중	2018년	2019년	2026년	CAGR(%)
<b>B2B</b>	<b>15.6</b>	<b>19.0</b>	<b>33.7</b>	<b>22.9</b>	<b>46.1</b>	<b>70.8</b>	<b>15.8</b>
<b>B2C</b>	<b>23</b>	<b>27.8</b>	<b>49.3</b>	<b>33.2</b>	<b>65.7</b>	<b>100.9</b>	<b>15.4</b>
편의점	3.1	3.7	6.6	4.4	8.7	13.6	15.5
식료품점	3.0	3.6	6.4	4.4	8.7	13.3	15.7
직수입	4.6	5.6	9.9	6.7	13.2	20.0	15.3
대형마트	3.7	4.5	8.0	5.2	10.4	16.3	15.4
온라인소매	6.4	7.8	13.8	9.3	18.3	28.0	15.3
전통가게	2.2	2.6	4.6	3.2	6.4	9.7	15.7
<b>전체</b>	<b>47.6</b>	<b>58.0</b>	<b>100.0</b>	<b>70.1</b>	<b>140.5</b>	<b>216.0</b>	<b>15.7</b>

주: CGAR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St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2019: 203-208).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최종 소비자는 호텔·식당·카페 등 외식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7년 기준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의 최종 소비자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호텔·식당·카페 등 외식업 비중이 54.2%로 가장 높고, 식품제조업(30.5%), 가계(10.3%) 순서임.
  - 전체(백만 달러): (2017년) 58.0→(2026년) 216.0, 연평균 성장률 15.7%
  - 호텔·식당·카페 등 외식업: (2017년) 29.7→(2026년) 108.4, 연평균 성장률 15.5%
  - 식품제조업: (2017년) 16.7→(2026년) 61.8, 연평균 성장률 15.7%
  - 가계: (2017년) 8.4→(2026년) 32.9, 연평균 성장률 16.3%

### 2.3. 대체식품 기술 수준 및 국내외 현황 비교

- 국내 대체식품 기술 수준은 해외에 비해 4~5년 늦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특허 출원 사례가 증가
  - 대체식품 개발과 관련하여 식물성 단백질의 추출·분리 및 발효, 식용곤충 단백질과 지방의 추출·분리, 그리고 줄기세포 추출·분리 및 세포배양과 관련된 기술이 이용됨.
  - 식물성 대체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 기반 단백질은 대두단백질(대두분리단백질과 조직화대두단백), 밀글루텐, 완두단백질, 곰팡이단백질인 퀴(Quorn)<sup>9)</sup> 등임. 대두단백질, 곰팡이단백질 등 단백질 소화능력을 고려한 아미노산점수가 소고기 등 육류에 비해 낮지 않아 대체식품의 소재로 많이 활용됨.
- 해외 식물성 대체식품은 실제 육류와 유사한 조직감·맛·풍미 구현을 목적으로 한 소재 발굴 및 가공기술 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 중임.

9) 곰팡이 단백질(Mycoprotein)은 전분 부산물에서 후사리움(Fusarium Graminearum)이라는 균류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생산, 추출해서 제조되고 있음. 1kg의 포도당에서 약 136g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육류와 가장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음.

- 국내는 한정적인 단백질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육류의 조직감·맛·풍미 등 육류 특성 모방 기술 및 다양한 제품이 부족한 실정임.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150여 종의 식물체 중 약 2% 수준만 단백질 소재로 사용됨 (한국비건인증원).
-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대체식품의 원천기술 특허 출원 사례가 증가 추세임. 생물학적 공정을 통한 헴 복합체 제조기술 및 콩 뿌리혹의 육즙 모사 성분 추출기술 등을 미국 특허 출원하거나, 대체육류의 주원료인 식물성 단백질인 BTVP<sup>10)</sup> 개발, 식물성 피 개발, 식물성 지방, 천연첨가물 개발 등 기술 및 특허 출원 기업도 있음.
- 해외 배양육은 2013년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생산비가 높아 제품 출시가 안 되고 있음.
  - (해외) 배양육을 이용한 햄버거 패티 생산 비용(100g당 가격): (2013) 37만 5천 달러 → (2017) 1,986달러 → (2021) 10달러 목표<sup>11)</sup>
  - 배양육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 배양장비 개발이 필요함. 줄기세포가 고기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배양육 개발의 관건이며, 줄기세포가 자라는 그릇인 스캐폴드에 줄기세포를 채운 뒤 세포배양액에 담가 고기로 배양함.
  - 식물성 스캐폴드를 개발한 국내 기업이 있음. 벤처기업과 서울대·세종대 연구팀이 돼지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 등에 대하여, 스타트업에서는 닭 근육세포 배양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임.

10) 디보션푸드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육류의 원료로 주로 이용되는 TVP(Textured Vegetable Protein), TSP의 단점인 유부와 같은 식감을 보완한 것임.

11) 이정만·김용렬(2018)과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0564211>>. 검색일: 2020. 6. 15.)를 참조하여 작성함.

### 대체식품의 국내외 산업 현황 비교

구분		기술 현황	시장 및 업체 현황	투자 현황	지속가능성
식물성 고기	해외	고기와 유사	시장 빠르게 성장 임파서블푸드, 비온드미트 등 선도기업	투자 활발	채식주의자 증가 추세 건강과 지속가능성으로 관심 증대 글루텐, 콩, 견과류 알레르기 비싼 가격, 고기 용어 규제
	국내	콩고기 수준	일부 영세업체	벤처투자 시작단계	
식물성 계란	해외	미국 선도	미국, 홍콩, 중국, 일본 등 판매	투자 활발	저렴한 가격
	국내	벤처기업	온라인, 채식주의 대상	벤처투자 시작단계	
식용곤충	해외	벨기에, 중국 발달	미국, 유럽, 태국 등 다양한 업체	일부 국가 활발	벨기에 관련법 있음.
	국내	세계 선도	에너지바, 분말형태, 한자식 활용	국가 투자	국내 관련법 제정으로 식용곤충산업 지원 혐오감·안전성 우려
배양육	해외	기술개발 성공 대량생산 준비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일본 기업 발달	투자 활발	비싼 가격 대량생산기술 한계
	국내	초기 연구단계	대학·벤처기업	없음	

자료: Meticulous Research(2019), 식품제조기업 및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반 육류와 대체 축산식품의 특징 비교

구분	기존육류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용곤충	배양육	
생산 방법	가축 사육 도축 후 식용	식물성 단백질가공	식물성 재료 사용	고효율	출기세포 배양생산	
가격	대량생산 가능성	높지만 한계 존재	높음	높음	높음	기술적 장벽 존재
	생산비	상승 중	저렴	저렴	하락 중	고기
환경	자원 사용량	높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온실가스 배출량	높음	감소	감소	감소	잠재적 감소
윤리	동물복지 문제	상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건강	건강 효과	변화 없음	단백질 증가 콜레스테롤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단백질 증가 지방 감소	지방산 조성 개선, 철분 감소
	안전성	변화 없음	식중독 감소	식중독 감소	알레르기 우려	검증된 제품 없음
선호	소비자 기호도	수요 증가	낮은 식미 문제	낮은 식미로 타 식품 재료로 이용	모양 혐오감	두려움과 과학기술 공포증

자료: 이정만·김용렬(2018)와 식품제조기업 및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대체식품 소비자 인식 및 당면과제<sup>12)</sup>

#### 3.1. 대체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 소비자들은 대체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건강증진과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 유지·개선, 가축질병 감축 등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 채식을 더 많이 할수록 대체식품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식품 섭취 경험자 중 불만족한 소비자는 맛과 식감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식물성 고기(3.31점)가 가장 높았고, 곤충식품(2.88점), 배양육(2.45점), 식물성 계란(2.44점) 순서로 나타났으며,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록 대체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식품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46.9%였으며, 섭취 경험은 식물성 고기(44.5%), 식물성 계란(12.4%), 곤충식품(6.3%) 순으로 나타남. 채식 경험이 있는 대체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곤충식품(3.27점), 식물성 고기(3.21점), 식물성 계란(2.98점) 순으로 나타남.
  - 대체식품 섭취 경험에 불만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제품의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맛과 식감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남. 곤충식품은 맛과 모양(외관)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았으며, 식물성 계란은 맛과 식감 외에도 향(냄새)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남.

12) 박미성 외(2019)를 참조하여 작성함.

### 섭취 경험이 있는 대체식품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맛	식감	모양 (외관)	색상	향 (냄새)	위생 (안전성)	
전체	(128)	55.5	29.7	3.1	0.8	10.2	0.8	
섭취한 경험이 있는 대체(축산) 식품	식물성 고기	(80)	61.3	28.8	1.3	1.3	6.3	1.3
	배양육	(3)	66.7	33.3	0.0	0.0	0.0	0.0
	곤충식품	(10)	50.0	10.0	30.0	0.0	10.0	0.0
	식물성계란	(35)	42.9	37.1	0.0	0.0	20.0	0.0

자료: 소비자(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9. 9. 16. ~ 10. 4.).

-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록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향후 소비 의향이 높지만, 식물성 고기의 경우에는 준채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보다 관심도 및 향후 소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5점척도로 식물성 고기(3.28점)가 가장 높고, 식물성 계란(3.01점), 배양육(2.78점), 곤충식품(2.41점) 순으로 나타남. 식물성 고기와 식물성 계란은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각각 45.8%, 32.7%인 것으로 나타나 비채식주의자도 관심을 가지는 품목임.<sup>13)</sup>
  - 한편, 채식주의자 여부에 따른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채식주의자(3.49점)가 채식주의자(3.39점)보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낫선 식품의 위생(안전성) 상태와 향(냄새)에 가장 민감하며, 윤리적 소비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향후 대체식품 소비 의향이 높음.
  - 신식품 섭취 시 위생(안전성), 향(냄새), 맛, 식감, 모양, 색상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채식주의자, 남자, 저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해 적극적인 성향을 보임.

13) 소비자(1000명)은 채식주의자 51명(5.1%), 준채식주의자 260명(26.0%), 비채식주의자 689명(68.9%)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준)채식주의자 비중인 31.1%임.

### 신식품에 대한 소비자 성향과 요인별 민감도(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성향 (적극성)	민감도						
			맛	식감	모양	색상	향 (냄새)	위생 (안전성)	
전체	(1,000)	<b>2.84</b>	<b>3.60</b>	<b>3.58</b>	<b>3.46</b>	<b>3.34</b>	<b>3.92</b>	<b>4.11</b>	
채식주의자 여부	채식주의자	(51)	<b>3.10</b>	3.51	3.51	3.29	3.20	3.71	3.82
	준채식주의자	(260)	<b>2.77</b>	3.56	3.60	3.47	3.34	3.90	4.17
	비채식주의자	(689)	<b>2.84</b>	3.62	3.57	3.47	3.35	3.94	4.11
성별	남자	(497)	<b>2.87</b>	3.52	3.51	3.36	3.22	3.76	4.01
	여자	(503)	<b>2.80</b>	3.68	3.64	3.55	3.45	4.07	4.21
연령대	만 19~29세	(198)	<b>2.91</b>	3.71	3.66	3.56	3.35	3.94	4.04
	만 30~39세	(204)	<b>2.93</b>	3.61	3.55	3.54	3.39	4.04	4.13
	만 40~49세	(245)	<b>2.81</b>	3.58	3.51	3.45	3.31	3.87	4.07
	만 50~65세	(353)	<b>2.75</b>	3.54	3.59	3.36	3.32	3.87	4.16

주 1) 성향(적극성)은 매우 소극적(1점), 소극적(2점), 보통(3점), 적극적(4점), 매우 적극적(5점)으로 하여 환산한 평균값임.

2) 민감도는 매우 민감하지 않음(1점), 민감하지 않음(2점), 보통(3점), 민감함(4점), 매우 민감함(5점)으로 하여 환산한 평균값임.

자료: 소비자(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9. 9. 16. ~ 10. 4.).

- 대체식품 소비 의향 결정 요인 분석 결과, 향후(5년 후) 대체식품 소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윤리적 소비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대체식품의 소비를 향후 현재보다 증대하려는 이유는 “건강 증진을 위해(34.1%)”가 가장 높고,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25.3%)”, “생명체 도축의 윤리성 또는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20.4%)” 순서로 나타남.

## 대체(축산)식품 소비를 현재보다 증대하려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건강 증진을 위해	비위생적인 사육·도축 환경 때문에	윤리성 또는 동물 복지 문제 때문에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가족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어서	기타	
전체	(495)	34.1	14.9	20.4	25.3	1.6	3.6	
채식주의자 여부	채식주의자	(26)	50.0	7.7	26.9	15.4	0.0	0.0
	준채식주의자	(150)	38.0	18.7	20.0	15.3	4.0	4.0
	비채식주의자	(319)	31.0	13.8	20.1	30.7	0.6	3.8

주: 소비자 1,000명 중 대체식품의 향후 소비 의향을 현재보다 증대(4점), 현재보다 크게 증대(5점)하겠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소비자(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9. 9. 16. ~ 10. 4.).

- 식물성 고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의 소비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곤충식품과 식물성 계란은 식감에 민감하고 자원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의 소비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맛과 모양에 민감한 소비자는 곤충식품에 대한 향후 소비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곤충식품은 맛과 모양을 고려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2. 대체식품 산업의 당면과제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미흡
  - 국내는 해외에서 개발된 원천 소재 및 기술을 단순 배합하는 수준의 식물성 대체육이 대부분이며, 조직감·맛·풍미 등 육류 특성 모방 기술이 부족함. 배양육은 초기 연구 단계임.
  - 대체식품 사업화 과정상 애로사항은 기술 개발·확보(26.5%), 시장정보 획득(20.6%),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14.7%), 전문인력 부족(11.8%), 관련 규격 및 기준 규제(11.8%) 순임.

### 대체식품 관련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1+2순위)

단위: %

구분	기술 개발·확보	시장 동향·전망 정보와 시장성 파악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 부족	전문인력 부족	관련 규격 및 기준 규제	마케팅	자금조달 (금융투자)	합계
사례수(명)	(9)	(7)	(5)	(4)	(4)	(3)	(2)	(34)
비중	26.5	20.6	14.7	11.8	11.8	8.8	5.9	100.0

주: 1순위, 2순위 응답을 중복 처리한 결과임.  
 자료: 식품제조업체(연구소) 및 전문가(30명) 대상 설문조사(2019. 9. 30. ~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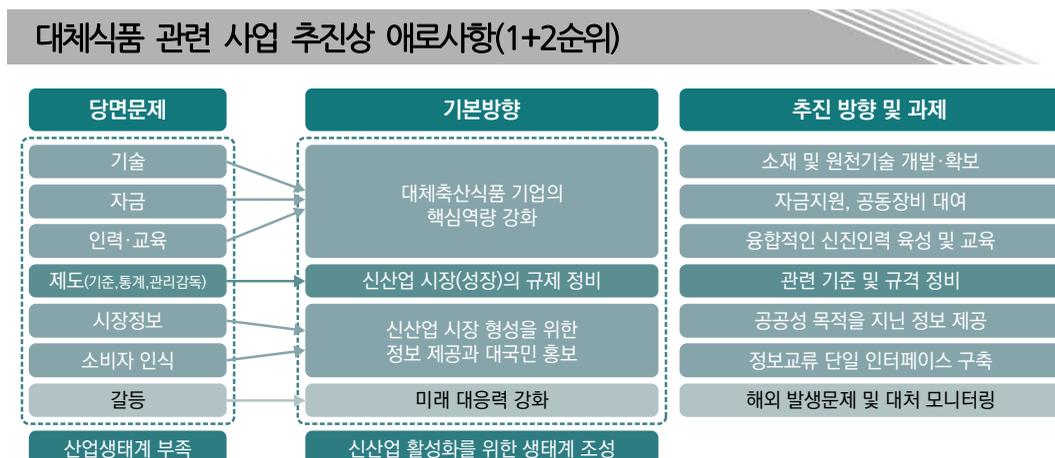
- 전문 연구인력 및 자금 부족
  - 대체식품기업은 선순환 운영구조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롯데 액셀러레이터, 농심 퓨처플레이 등 벤처투자회사가 생기면서 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연구인력 채용 및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개발 및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미흡함.
- 관련 기준 및 규격 미비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한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및 라벨 표시, 배양육의 세포배양액 등 신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및 기준, 상표 및 광고문구의 규정이 미비함.
- 대체식품의 생산 및 수출입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미비
  - 대체식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HS(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에 품목 구분이 없음.
- 배양육의 안전성 등 소비자 수용성 논란과 관리감독 관할권 문제
  - 세포배양방식의 육류 생산에서 요구되는 안전 조건 및 지침이 없으며, 관리 감독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배양육은 동물세포에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한 식품으로 세포배양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쓰고 있어 GMO 및 안전성 논란이 있음.
- 배양육의 경우 비동물성 소재인 녹조류, 버섯 추출물, 식물유래 단백질로 세포 배양액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대부분 세포 배양과정에 소 태아혈청을 이용하고 있음.
- 시장정보 및 소비자 인지 부족
  -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 대체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식품이 가지는 영양 정보와 자원절약 및 환경저감 효과 등을 인지하지 못해 시장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 업계와의 갈등으로 식물성제품 고기·마요네즈 용어 논란 예상
  - 대체식품의 국내 시장규모가 아직 협소하기 때문에 식물성제품에 기존 동물성 제품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지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 4.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sup>14)</sup>

### 4.1.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이슈 해결을 위한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민간이 선정한 대상에 정부가 지원하는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을 지원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 기반 대체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보육과 투자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내 벤처 및 분사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하거나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스타트업·투자자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창업 박람회 및 창업경진대회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료: 박미성 외(2019: 127).

14) 박미성 외(2019)를 참조하여 작성함.

## 4.2.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

- 소재 및 원천기술 개발·확보
  - 대체식품 소재 및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①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②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형태는 산·학·연 또는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개방화된 혁신적 R&D를 우선 지원하며, ③ 식품기업이 대체식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등 외부 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혁신기술 개발이 바람직하며, ④ 대체식품 기술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함.
  - 또한 ⑤ 기술기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투자-사업화 연계 R&BD를 추진하고, ⑥ 해외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기술의 개발은 기초 R&D와 상용화 단계를 분리한 중장기 기술개발 접근방식으로 하며, ⑦ 농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체소재 기술의 개발도 필요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 조성
  - 대체식품 산업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 초기 기업은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딩 등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제상의 혜택 확대가 필요함.
- 공동장비 대여 및 공동플랜트(공장) 사업
  - 창업 및 벤처 초기단계에 필요한 공동이용 생산 설비와 신식품 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공동장비 대여 및 공동플랜트(공장) 사업 등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체식품은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세포배양, 3D 식품 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고가의 장비 및 설비가 필요함. 신식품 기술을 개발한 후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가 필요함.
- 융합적인 신진인력 육성 및 교육
  - 대체식품 기업의 인력난 해결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 가공기술 이론뿐만 아니라 맛·향 등 식미이론, 기기장비 작동이 가능한 융합적인 신진

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고, 식품분야 일자리박람회(전시회)와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3. 신산업시장(성장)의 규제 및 통계 정비

- 관련 기준 및 규격 정비
  - 신산업시장(성장)의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① 대체식품 관련 규격 및 기준 정비, ② 알레르기 예방 품목이 함유된 신식품의 라벨 표시 등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며, ③ 신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감독할 기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통계분류체계 품목 추가
  -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식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식품에 대한 수출입 세번 및 식품제조·유통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품목코드 및 HS(관세 및 통계 통합 품목분류)에 대체식품의 품목 유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4. 신산업 시장 형성을 위한 정보 제공과 대국민 홍보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 식품제조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30명, 2019. 9. 30. ~ 10. 8.), 대체식품 관련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25%로 1위로 나타남. 신산업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대체식품의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 개선, 가축질병 감축 등 공공성 목적을 지닌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정보교류 단일 인터페이스 구축
  - 대체식품이 생산 및 판매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투자업계의 관심 유도,

기존 식품제조업, 외식업계, 유통업계, 곡물축산업계, 맛·향 등 식미컨설팅 업계, 홍보마케팅업계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업이 필요함. 다양한 상품 출시로 고유의 독립된 상품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업체 공통의 문제 해결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정보교류 단일 인터페이스 및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4.5. 미래 대응력 강화

- 해외 발생 문제 및 대처 모니터링
  - 신식품 시장의 확대가 기존 식품계의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됨. 대체식품의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대처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1)

이용건\*, 김명수\*\*

## 1. 돼지 사육 및 수급현황

-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00년 821만 마리에서 2019년 1,128만 마리로 19년 동안 연평균 1.7%씩 증가하였음. 모든 마릿수는 2000년 92만 마리에서 2019년 103만 마리로 19년 동안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음.
- 돼지 사육농장 수는 2000년 2만 3,841호에서 2019년 6,133호로 연평균 6.9%씩 감소하였지만, 호당사육 마릿수는 2000년 344.5마리에서 2019년 1,839.2마리로 증가하여 양돈산업은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연도별 돼지 사육 현황

구 분	총 사육 마릿수 (천마리)	모든 마릿수 (천마리)	사육농장 수 (천호)	농가당 사육 마릿수(마리)	농가당 모든 마릿수(마리)
2000년	8,214	917.7	23,841	344.5	38.5
2010년	9,881	991.3	7,347	1,344.9	134.9
2015년	10,187	958.2	4,909	2,075.1	195.2
2017년	11,273	1,058.3	6,313	1,785.7	167.6
2019년	11,280	1,025.8	6,133	1,839.2	167.3
연평균 증감률 (2000-2019)	1.7%	0.6%	-6.9%	9.2%	8.0%

주: 사육 마릿수 및 사육농장수는 연말 기준이며,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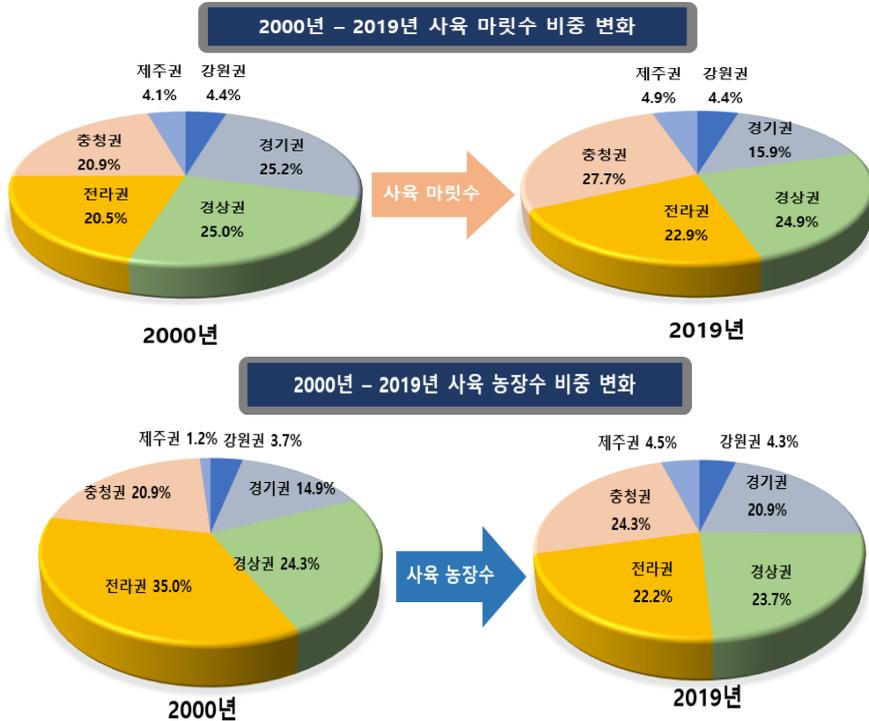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분석”(2020. 08.)을 기반으로 작성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g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kms86@krei.re.kr)

- 돼지 사육농장 수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권 사육농장 수는 연평균 9.2%씩 감소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권 7.0%, 강원권 6.2%씩 감소하였음.
  - 권역별 사육농장 수 비중은 충청권이 가장 높음. 2019년 권역별 사육농장 수 비중을 2000년과 비교하면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제주권은 증가했으나, 전라권과 경상권은 감소하였음.
- 권역별 사육 마릿수 비중은 2000년에는 경기권이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충청권이 가장 높음. 2019년 권역별 사육 마릿수 비중을 2000년과 비교하면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은 2000년 대비 증가하였음. 한편, 경기권과 경상권은 2000년 대비 감소, 강원권은 2000년과 비슷함.

### 권역별 돼지 사육마릿수와 사육농장 수 비중 변화



자료: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9년 돼지고기 총수입량은 42만 1,342톤임. 국가별로 미국에서 17만 3,753톤(41.2%)이 수입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독일 7만 8,022톤(18.5%), 스페인 5만 6,721(13.5%)톤 등의 순임.
- 돼지고기 부위별 수입량은 삼겹살이 16만 4,823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39.1%를 수입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앞다리 15만 2,477톤 (36.2%), 목심 6만 5,894톤(15.6%) 등의 순으로 수입이 많았음.
- 2019년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량은 삼겹살과 갈비는 독일산 수입이 많으며, 목심과 앞다리는 미국산 수입이 많음.
  - 미국산 돼지고기는 앞다리 부위가 11만 7,821톤(67.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목심 2만 9,895톤(17.2%), 삼겹살 8,027톤(4.6%), 갈비 1,956톤(1.1%) 등임.
  -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삼겹살이 6만 8,099톤(87.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갈비 5,346톤(6.9%), 앞다리 2,187톤(2.8%) 등임.

### 2019년 국가별·부위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구 분	삼겹살	목심	갈비	앞다리	기타부위	계
총 수입량	164,823	65,894	10,756	152,477	27,392	421,342
- 미국	8,027	29,895	1,956	117,821	16,054	173,753
- 독일	68,099	650	5,346	2,187	1,740	78,022
- 스페인	26,322	11,393	1,004	11,010	6,991	56,721
- 칠레	17,459	4,516	425	1,914	568	24,882
- 캐나다	6,083	11,345	119	6,896	862	25,305
- 네덜란드	11,181	1,375	37	6,939	345	19,877
- 오스트리아	9,587	182	237	6	671	10,682
- 멕시코	5,372	1,860	1,074	65	24	8,395
- 덴마크	918	3,843	-	3,101	132	7,994
- 프랑스	5,203	23	88	-	-	5,314
- 기타국가	6,572	812	471	2,539	4	10,398

주 1) 국가별 수입량은 2019년 기준 수입물량 상위 10개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기타국가로는 핀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영국, 스웨덴, 포르투갈 등이 있음.

2) 국가별 수입량은 '톤'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11년 19.2kg에서 2019년에는 28.0kg까지 늘어나 약 45.8% 증가하였음.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소비자 선호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말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하였음. 2012년 이후 모든 증가로 돼지 출하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 57만 6천 톤에서 2019년 98만 6천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1년 37만 톤에서 2018년 46만 4천 톤으로 증가한 후 2019년 42만 1천 톤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돼지고기 자급률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하락하고 있음.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3년 81.4%에서 2019년 70.0%로 하락하였음.

### 돼지고기 수급 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공급	이월	47.5	55.2	120.0	107.7	91.2	129.1	96.4	115.9	141.2
	생산	575.6	749.7	853.8	830.2	848.6	891.1	904.0	944.8	985.8
	수입	370.4	275.2	185.0	273.9	357.9	318.5	389.2	463.5	421.3
	계	993.5	1,080.1	1,158.8	1,211.8	1,297.7	1,338.7	1,389.6	1,524.2	1,548.3
수요	소비	937.8	958.8	1,049.3	1,118.9	1,166.4	1,240.3	1,272.2	1,382.1	1,407.5
	수출	0.5	1.3	1.8	1.8	2.2	2.1	1.5	0.9	1.1
	재고	55.2	120.0	107.7	91.2	129.1	96.4	68.2	141.2	139.7
	계	993.5	1,080.1	1,158.8	1,211.8	1,297.7	1,338.7	1,389.6	1,524.2	1,548.3
자급률(%)		61.4	78.2	81.4	74.2	72.8	71.8	71.1	68.4	70.0
1인당 소비량(kg)		19.2	18.8	20.9	21.8	22.8	24.1	24.5	27.0	28.0

주: 자급률 =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총 소비량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 각 연도』.

## 2. 돼지고기 유통 및 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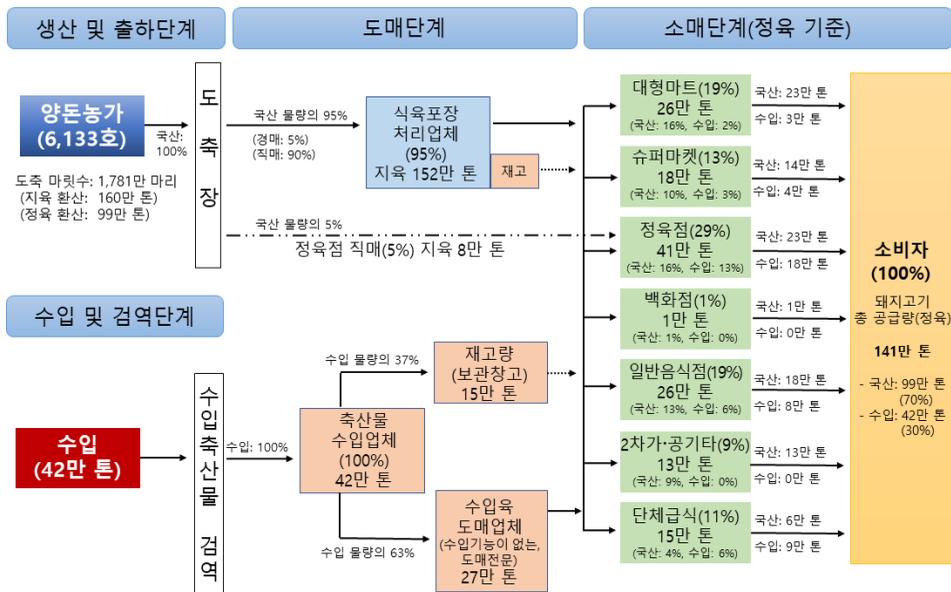
### 2.1.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현황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9년 축산물 유통실태」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2019년 돼지고기 공급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하였음.
  - 국내산 돼지고기는 모두 도축장을 경유하고, 수입 돼지고기는 모두 검역을 거쳐 도소매 단계로 유통됨.
- 2019년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99만 톤(정육 기준)이며, 수입물량은 42만 톤으로 국산과 수입을 합하여 총 141만 톤의 돼지고기가 공급되었음.
  - 국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의 95%는 지육 형태로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정육으로 가공된 후 소매단계로 유통됨. 5%의 지육은 정육점으로 공급된 후 정육점에서 1차 육가공을 거쳐 소매 유통기구로 공급됨.
  - 수입 돼지고기는 수입육 도매업체를 통해 소매단계로 유통되거나, 보관창고에 입고된 후 소매단계로 유통되고 있음.
- 2019년 소매단계에서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돼지고기 취급물량이 가장 많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순으로 유통되고 있음.
  - 정육점은 국산 돼지고기 약 23만 톤, 수입 돼지고기 약 18만 톤을 취급함.
  - 대형마트의 국산과 수입 돼지고기 취급량은 각각 23만 톤, 3만 톤임.
  - 일반음식점은 국산과 수입 돼지고기를 각각 18만 톤, 8만 톤 취급함.
  - 슈퍼마켓은 국산과 수입 돼지고기를 각각 14만 톤, 4만 톤 취급함.
- 2019년 수입 돼지고기 42만 톤 중에서 18만 톤(42.9%)이 정육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물량 중에서 국산 돼지고기는 23만 톤으로 수입 돼지고기보다 많음.
  -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등 유통 주체들은 수입 돼지고기보다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음.

- 다만, 단체급식의 수입 돼지고기 취급량은 약 9만 톤으로 6만 톤인 국내산 돼지고기 취급량보다 많음.

### 2019년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현황



- 주 1)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산 돼지고기 유통주체별 취급물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3) 2019년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돼지고기 자육율 76.7%, 정육율 47.3%, 생체중량 117kg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4)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자료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함.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 『2019년 축산물 유통실태』(유통경로별 비중, 돼지고기 수입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9년 돼지고기 공급량).

## 2.2. 돼지고기 재고 실태와 특징<sup>2)</sup>

- 돼지고기 재고는 돼지고기 및 다른 육류의 생산량이나 가격, 계절, 소비자의 부위별 선호도, 소비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돼지고기 재고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음. 2019년 월평균 국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8.2%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도 같은 기간 동안 29.2% 증가해 2019년 전체 돼지고기 월평균 재고량은 15만 3,963 톤으로 2018년에 비해 36.3% 증가함.
- 최근 돼지고기 재고량이 많이 증가한 원인은 국산 돼지고기 공급증가와 함께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 국산 돼지고기는 2019년까지 고(高)돈가를 유지함에 따라 생산량(등급판정 마릿수)은 2016년 1,652만 마리에서 2019년 1,781만 마리(7.8% 증가)로 증가함. 돼지고기 수입도 증가했는데, 2016년 31만 8천 톤에서 2018년 46만 3천 톤(45.6% 증가)으로 증가한 후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42만 1천 톤이 수입되었음.

### 연도별 돼지고기 재고현황

단위: 톤

구분	월평균			연말(12월)		
	국산	수입	합계	국산	수입	합계
2016년	39,977	51,234	91,211	34,740	42,415	77,155
2017년	31,632	48,518	80,150	34,136	36,562	70,698
2018년	41,769	71,227	112,996	58,058	72,624	130,682
2019년	61,912	92,051	153,963	76,844	79,000	155,844
전년 대비 증감율(%)	48.2	29.2	36.3	32.4	8.8	19.3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2)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02년부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재고량 등을 조사하여 전체 재고량을 추정 발표한 ‘육류유통실태조사’자료 등에 근거함. 한편,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5년 12월부터 매월 전국 축산물검역시장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돼지고기 재고량 조사 자료에 근거함.

## 2.3. 국산 돼지고기 월별 재고현황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국산 돼지고기의 월평균 재고량은 4만 3,823톤임. 부위별로 뒷다리가 1만 3,253톤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삼겹살 7,170톤, 앞다리 5,723톤, 등심 5,520톤, 목심 4,323톤 등의 순임.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 성수기인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겨울철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월~12월 평균 재고량과 월별 재고량으로 도출한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지수는 3월에 1.18로 최고를 기록한 9월에는 0.79까지 감소한 후 증가함.
- 부위별로 삼겹살 재고는 여름휴가(캠핑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구이 소비의 증대로 7~9월에 재고량이 가장 적으며, 12월~2월에 재고량이 가장 많음. 목심 재고는 월별로 삼겹살과 같이 구이 소비가 증가하는 7월~9월에 감소하며, 3월~4월에는 재고가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월별·부위별 재고현황

단위: 톤

구 분	주요 부위					전체	
	삼겹살	목심	갈비	앞다리	뒷다리	합계	재고지수
1월	8,703	4,611	2,595	5,791	15,368	47,285	1.08
2월	8,191	4,809	3,005	6,526	16,109	48,096	1.10
3월	7,855	4,996	3,762	6,807	16,982	51,586	1.18
4월	7,556	4,941	3,953	6,342	13,507	46,032	1.05
5월	7,293	4,145	3,918	6,056	13,157	44,707	1.02
6월	6,551	4,073	3,648	5,397	11,523	41,013	0.94
7월	6,118	3,793	3,742	5,310	11,936	40,424	0.92
8월	5,280	3,441	2,566	4,753	9,956	35,229	0.80
9월	5,736	3,422	2,001	4,599	10,405	34,631	0.79
10월	7,020	4,491	3,025	5,767	10,969	41,293	0.94
11월	7,170	4,430	3,797	5,126	13,270	44,633	1.02
12월	8,571	4,726	3,674	6,207	15,857	50,944	1.16
평균	7,170	4,323	3,307	5,723	13,253	43,823	1.00

주 1) 월별 재고량은 2016년~2019년 월별 평균 재고량임.

2) 재고지수는 1월~12월 평균 재고량을 1.00으로 하여 월별재고량을 지수화한 것임.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2.4. 수입 돼지고기 월별 재고 현황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수입 돼지고기의 월평균 재고량은 9만 304톤으로 국산 돼지고기 재고의 약 2배 수준임. 부위별로 삼겹살이 2만5,634톤으로 가장 많으며, 앞다리 2만 4,206톤 등으로 정육 합계 재고량은 6만 5,756톤이며, 부산물 재고량은 2만4,610톤임.
- 수입 돼지고기의 월별 재고량은 겨울철(9월~1월)에 감소하며, 5~8월에는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산 돼지고기 재고와 상반되는 추이를 보임.
  - 월별 재고지수는 10월에 0.85로 가장 낮으며, 6월에 1.13으로 가장 높음.
- 부위별로 수입 삼겹살과 앞다리는 모두 9월~1월에 재고가 감소하며, 5월부터 7월에 재고가 증가함.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의 변화는 국산 돼지고기 재고량 변화보다 안정적임.

### 수입 돼지고기 월별·부위별 재고현황

단위: 톤

구 분	부 위					전 체	
	삼겹살	앞다리	기 타	정육합계	부산물	합계	재고지수
1월	24,890	19,839	15,225	59,954	25,104	85,058	0.94
2월	25,612	22,374	15,696	63,682	23,976	87,658	0.97
3월	25,016	25,553	15,521	66,089	23,039	89,128	0.99
4월	24,958	28,846	16,281	70,085	22,911	92,996	1.03
5월	26,492	31,630	16,545	74,666	24,681	99,347	1.10
6월	28,097	31,481	17,862	77,439	25,289	101,978	1.13
7월	28,568	28,516	17,841	74,925	26,131	101,056	1.12
8월	27,454	24,042	17,613	69,108	25,764	94,873	1.05
9월	25,369	20,509	15,645	61,523	24,980	86,504	0.96
10월	22,672	17,792	13,520	53,983	22,911	76,894	0.85
11월	24,824	20,676	14,473	59,973	26,384	86,357	0.96
12월	23,760	19,216	14,675	57,651	24,152	81,803	0.91
평균	25,643	24,206	15,908	65,756	24,610	90,304	1.00

주: 월별 재고량은 2016년~2019년 월별 평균 재고량임.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3. 돼지고기 가격 특성

#### 3.1. 돼지고기 도·소매가격 동향

- 2020년 상반기 돼지 산지가격(1월~6월 평균)은 돼지 생체중 110kg 기준 34만 1천 원임. 돼지 산지가격은 2000년 16만 9천 원에서 2019년 28만 5천 원으로 상승해 연평균 2.79%씩 상승함.
- 2020년 상반기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1월~6월 평균)은 지육 1kg당 4,037 원임. 전국 도매시장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kg당 2000년 2,302원에서 2019년 4,037원으로 연평균 2.73%씩 상승함.
- 2020년 상반기의 돼지고기 소매가격(1월~6월 평균)은 서울 2,155원/정육 100g, 전국 2,201원/정육 100g임.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2000년~2019년 연평균 4.42%(서울), 4.65%(전국)씩 상승하였음.

#### 돼지고기 가격 동향

구분	산지가격 (천원/110kg)	도매가격 (원/지육 kg, 전국 도매시장)		소매가격(원/정육 100g)	
		비육돈(탕박)	비육돈(박피)	서울	전국
2000년	169	2,302	2,489	789	777
2005년	278	3,449	3,722	1,489	1,489
2010년	320	3,891	4,232	1,606	1,663
2015년	417	4,939	5,181	1,948	2,010
2016년	389	4,600	4,896	1,918	1,960
2017년	417	4,947	5,275	2,057	2,095
2018년	368	4,362	3,362	1,904	1,935
2019년	285	3,843	2,400	1,793	1,842
2020년 상반기	341	4,037	2,273	2,155	2,201
연평균 증감률(%) (2000-2019)	2.79	2.73	-0.19	4.42	4.65

주 1) 2000년 돼지 산지가격은 166천원/마리(100kg)를 110kg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2) 2010년부터 산지가격은 전국도매시장 지육(박피)경락가격을 기초로 환산함.

3) 돼지고기 산지 및 도매가격은 2017년까지는 농협경제지구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2018년부터는 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임.

4) 2020년은 1월~6월까지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검색일: 2020. 7. 5, 농협경제지구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2019)』.

### 3.2. 돼지고기 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관계

- 최근 3개년 동안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변동하였음.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대해 각 품목의 기여도는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2017년이 0.057%p로 가장 컸으며, 2019년 0.036%p, 2018년 0.033%p순임<sup>3)</sup>.
  - 2019년 기준 육류 품목별 기여도는 돼지고기가 0.036%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국산 쇠고기 0.018%p, 수입 쇠고기 0.011%p 등의 순임.
- 축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외식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는 2019년 기준 치킨이 0.027%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돼지갈비(외식) 0.014%p, 삼겹살(외식) 0.013%p 등임.

돼지고기 관련 소비자물가 변동률 및 기여도

구분	변동률(%)			기여도(%p)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총지수	1.94	1.48	0.38				
육류	돼지고기	6.18	-3.63	-3.90	0.057	0.033	0.036
	국산쇠고기	-0.76	2.46	2.40	0.006	0.019	0.018
	수입쇠고기	2.56	1.60	3.55	0.008	0.005	0.011
	닭고기	4.96	-2.28	1.35	0.007	0.003	0.002
	소시지	-2.03	-1.00	-0.42	0.003	0.001	0.001
	햄 및 베이컨	-3.63	1.55	-1.62	0.011	0.004	0.005
외식	돼지갈비(외식)	2.37	3.79	2.21	0.015	0.023	0.014
	삼겹살(외식)	2.60	3.27	2.07	0.017	0.021	0.013
	쇠고기(외식)	2.28	3.12	2.26	0.013	0.017	0.012
	불고기(쇠고기)	2.00	2.47	2.49	0.003	0.004	0.004
	오리고기(외식)	1.26	2.49	1.41	0.002	0.003	0.002
	설렁탕	3.30	4.44	2.70	0.007	0.010	0.006
	갈비탕	4.45	6.01	3.01	0.010	0.014	0.007
	삼계탕	1.99	2.94	2.52	0.005	0.007	0.006
	치킨	0.88	2.75	5.15	0.005	0.014	0.027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이용하여 계산함.

3) 가격지수 변동률과 해당 품목이 총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치를 이용해 총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을 계산함.

### 3.3. 돼지고기 가격변동이 산업부문별 미치는 영향

- 양돈 및 육류, 육가공품, 음식점(외식) 산업의 가격상승이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양돈부문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에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의 가격이 3.58% 상승하여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순임<sup>4)</sup>.
-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에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상승해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점(외식)부문 0.97%, 음식료품 0.09% 등의 순임.
- 한편, 최종 수요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육가공품부문과 음식점(외식)부문이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양돈 및 관련산업 가격 10% 상승의 영향

단위:%

영향 순위	양돈		육류		육가공품		음식점(외식)	
	부문	영향	부문	영향	부문	영향	부문	영향
1	육류	3.58	육가공품	2.91	음식점(외식)	0.16	도·소매	0.49
2	육가공품	0.43	음식점(외식)	0.97	사료	0.07	서비스	0.32
3	음식점(외식)	0.27	음식료품	0.09	한육우	0.04	농업서비스	0.31
4	음식료품	0.02	사료	0.08	낙농	0.04	광산품	0.28
5	사료	0.02	한육우	0.05	음식료품	0.04	양돈	0.24
6	한육우	0.01	양돈	0.05	양돈	0.03	육류	0.23
7	도·소매	0.01	도·소매	0.05	가금	0.03	가금	0.22
8	낙농	0.01	낙농	0.05	육류	0.03	한육우	0.22
9	가금	0.01	가금	0.05	기타축산	0.02	운수	0.22
10	서비스	0.01	서비스	0.05	도·소매	0.01	임업어업	0.22

주 1) 영향순위는 “생산자 가격상승” 크기의 순위이며, 영향순위 상위 10위까지 제시함.

2) 생산자 가격상승은 해당부문의 직접투입에 의한 가격 상승효과인 “직접효과”와 산업부문간 연계효과에 의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가격 상승효과(직·간접효과)임.

4)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기본부문표)」와 “균형가격모델”을 이용한 분석 결과임.

- 양돈부문과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부문은 타산업 부문(관련산업 부문)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 양돈부문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료부문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다음으로 서비스부문, 제조업부문, 농업부문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큼. 육류부문은 양돈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비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높아 사료부문 가격상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다음으로 양돈부문, 한육우부문, 서비스부문 등의 순임.
- 육가공품은 육류부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등의 순임. 한편 음식점(외식)부문은 음식료품부문의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제조업부문, 도·소매부문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타산업 부문의 가격 10% 상승의 영향 순위

단위:%

영향 순위	양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		육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		육가공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		음식점(외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문	
	부문	영향	부문	영향	부문	영향	부문	영향
1	사료	4.30	사료	3.59	육류	2.91	음식료품	2.10
2	서비스	1.87	양돈	3.58	제조업	2.40	서비스	2.00
3	제조업	1.46	한육우	2.82	서비스	1.41	제조업	1.63
4	농업	1.46	서비스	1.84	도·소매	1.37	도·소매	1.32
5	도·소매	1.28	제조업	1.53	음식료품	1.35	육류	0.97
6	음식료품	1.17	가금	1.49	운수	0.69	농업	0.76
7	운수	0.67	도·소매	1.35	사료	0.45	전력가스수도	0.50
8	전력가스수도	0.39	농업	1.16	양돈	0.43	운수	0.40
9	광산품	0.30	음식료품	0.97	전력가스수도	0.39	임업어업	0.37
10	음식점	0.24	운수	0.82	광산품	0.38	광산품	0.35

주 1) 영향순위는 “생산자 가격상승” 크기의 순위이며, 영향순위 상위 10위까지 제시함.

주 2) 생산자 가격상승은 해당부문의 직접투입에 의한 가격 상승효과인 “직접효과”와 산업부문간 연계효과에 의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가격 상승효과(직·간접효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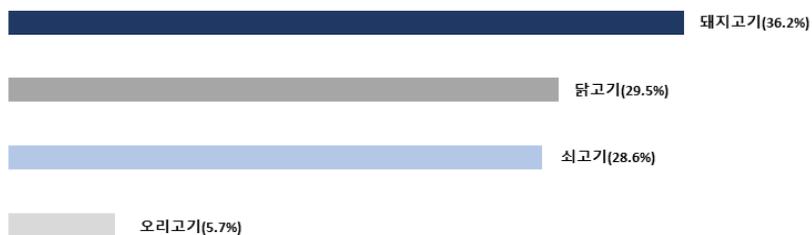
## 4. 돼지고기 소비동향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간 3.0%씩 증가하였음. 동기간 동안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67만 4,017톤에서 91만 9,913톤으로 1.7% 증가했으며, 수입돼지고기 소비량은 10만 5,891톤에서 41만 4,539톤으로 7.9%씩 증가하였음.

### 4.1. 돼지고기 소비행태 분석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sup>5)</sup>,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육류 중 가장 선호하는 육류는 돼지고기(36.2%)였으며 닭고기(29.5%), 쇠고기(28.6%), 오리고기(5.7%) 순으로 조사되었음.
  - 돼지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 삼겹살이었으며 목살, 갈비, 등심 순으로 조사되었음.

#### 육류 소비 비중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63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7~29일 3일간 온라인으로 국산 및 수입 육류 소비 비중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칸타월드패널(Kantar Worldpanel)에서 전국 5,000가구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물 가구 패널 조사 결과<sup>6)</sup>, 가정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4주 평균)은 2014년 2.28kg에서 2019년 1.83kg으로 19.7%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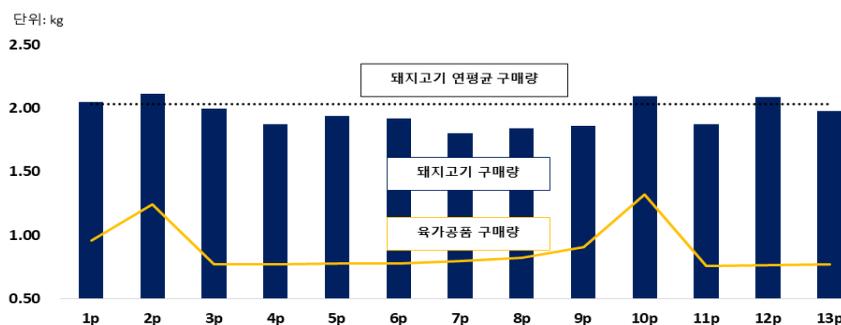
### 돼지고기 구매량 및 구매빈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1회당 구매량(kg)	1.12	1.11	1.08	1.03	1.00	0.99	-1.0
구매빈도(회)	2.04	1.91	1.87	1.90	1.87	1.85	-1.1
가구당 평균 구매량(kg)	2.28	2.11	2.02	1.95	1.87	1.83	-2.1

자료: Kantar Worldpanel Division.

- 돼지고기·육가공품 구매량 패턴 분석 결과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돼지고기 구매량은 명절 시기인 1~2구간<sup>7)</sup>(12월~2월)과 10구간(9월~10월)의 구매량이 연평균보다 많았음. 또한, 김장철이 있는 12구간(11월~12월)에도 연평균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돼지고기·육가공품 구매량 패턴



자료: Kantar Worldpanel Division.

6) 축산물 가구패널 조사(Kantar Worldpanel Division) 결과이며 외식을 포함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7) 주(week) 단위로 4주를 1구간(p)으로 설정하여, 구간과 월(month)이 일치하지 않음.

## 4.2. 코로나 19가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는 1~7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시점 기준 1개월 전 대비 농축산물 외식 빈도, 구매량, 온·오프라인 매장 이용 횟수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음<sup>8)</sup>.
-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1차 조사) 이후부터 3차 조사까지는 “줄었다”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나, 4차 조사 이후부터 전차(이전) 대비 “비슷하다”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외식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 19 발생 이후 돼지고기 외식소비 변화

구분	빈도			비중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구매안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1차	19	225	234	4.0	47.1	<b>49.0</b>
2차	75	146	325	13.7	26.7	<b>59.5</b>
3차	112	171	287	19.6	30.0	<b>50.4</b>
4차	139	226	207	24.3	<b>39.5</b>	36.2
5차	150	258	150	26.9	<b>46.2</b>	26.9
6차	172	258	158	29.3	<b>43.9</b>	26.9
7차	142	275	152	25.0	<b>48.3</b>	26.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 돼지고기 구매량은 전월(조사 월 기준)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돼지고기 구매량이 “줄었다”에 대한 응답한 비중은 1차 조사(16.7%)를 제외하고 10% 내외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40~50% 비중을 차지하였음.

8) “1차 조사”는 557명을 대상으로 2월 21~23일 진행되었으며, “2차 조사”는 611명 대상 3월 11~15일, “3차 조사”는 623명 대상 3월 31~4월 2일, “4차 조사”는 617명 대상 4월 20~22일, “5차 조사” 609명 대상 5월 15~18일, “6차 조사” 632명 대상 6월 23~25일, “7차 조사”는 630명 대상 7월 21~23일 진행되었음.

- 외식의 경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육 소비 비중이 크고, 가정에서는 수입 보다 국산 소비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외식 수요는 비슷하거나 줄었지만 가정내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소비용도가 다양한 점도 국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판단됨.

### 코로나 19 발생 이후 돼지고기 구매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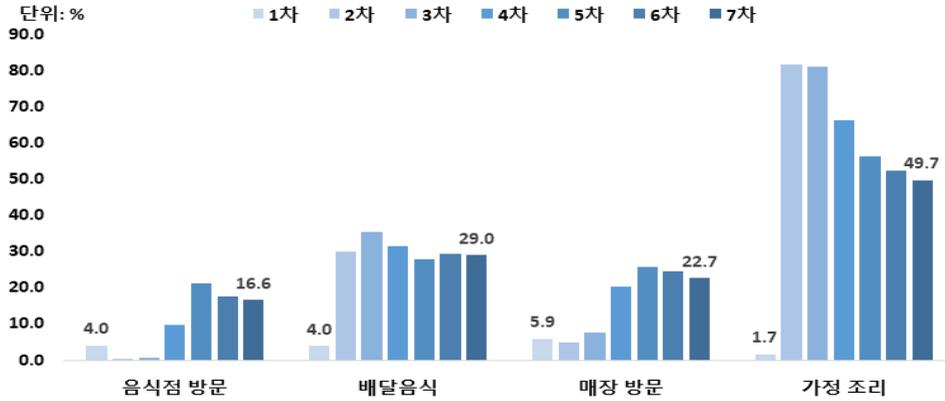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구매안함)	늘었음	비슷함	줄었음
1차	101	357	92	18.4	<b>64.9</b>	16.7
2차	271	260	75	<b>44.7</b>	42.9	12.4
3차	274	299	49	44.1	<b>48.1</b>	7.9
4차	294	275	42	<b>48.1</b>	45.0	6.9
5차	266	292	48	43.9	<b>48.2</b>	7.9
6차	248	328	52	39.5	<b>52.2</b>	8.3
7차	228	342	56	36.4	<b>54.6</b>	8.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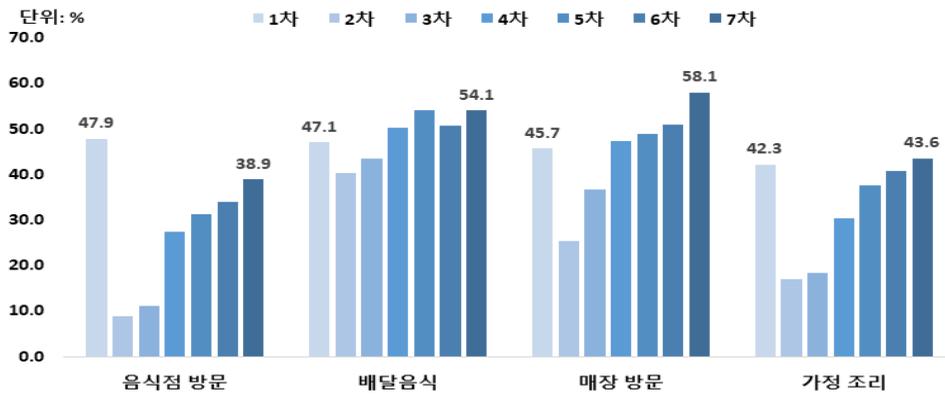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유형별 식품소비 이용빈도 조사 결과 4차 조사 시점인 4월 말까지 오프라인 매장방문보다는 가정조리 및 배달 음식 이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5차 조사 시점인 5월부터는 음식점 방문 및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음식점 방문’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은 3~4월 0.5% 내외 수준에서 7월 16.6%까지 증가하였음. ‘배달음식’ 비중은 1차 조사 4.0%에서 2차 조사 29.9%까지 증가 후 7차 조사까지 30% 수준을 유지하였음.
-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매장방문’이 늘었다는 응답은 1~3차 5~7% 수준에서 4월 말 이후 20%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가정조리’는 1차 1.7%에서 2차 81.8%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4월 말 66.4%, 7월 49.7%까지 감소하였음.

## 돼지고기·육가공품 구매량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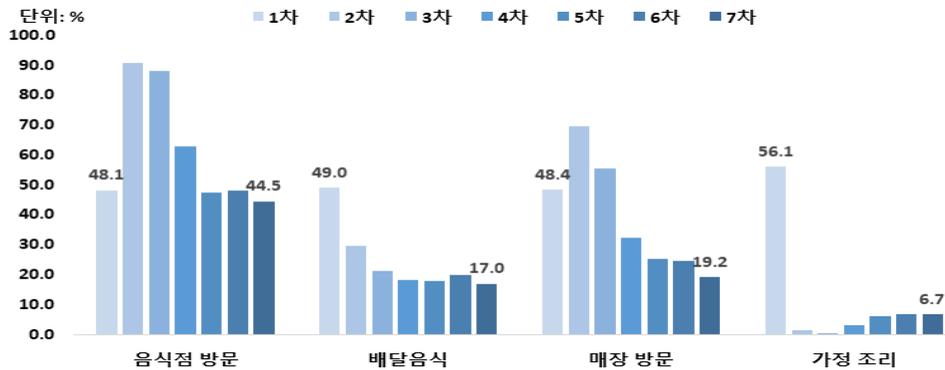
### <늘었다>



### <비슷하다>



### <줄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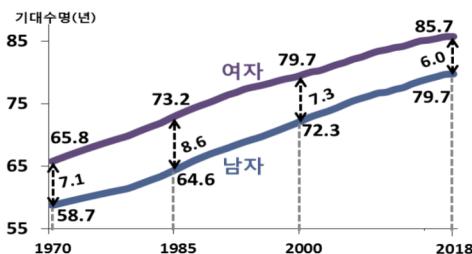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과 정책 과제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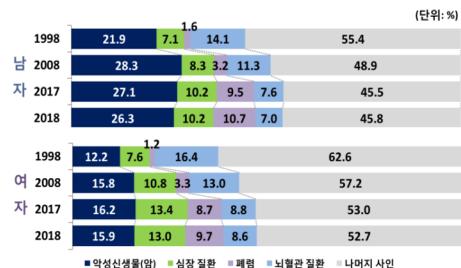
## 1. 연구 배경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18년 기준 14.8%로 2010년 대비 3.31% 증가하여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함.
  -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나 남성의 기대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8년 79.7세로 21세 늘었고 여성의 기대수명도 1970년 65.8세에서 2018년 85.7세로 19.9세 증가함.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2012년 대비 남성은 1세, 여성은 1.6세 감소함.
  -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인구 비율도 2019년 기준으로 19.5%이며, 노인 고령자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4.2%로 높음.

### 기대수명 변화 및 건강수명 현황



<기대수명 변화>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자료: 통계청 「2018년 생명표」 p.1, 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oonkim@krei.re.kr)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 큼.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요양 시설에서 지낸 기간이 평균 707일이며 사망 전 10년간 노인이 사용한 의료비와 요양비는 총 6.6조 원으로 1인당 약 5,000만 원으로 나타남.
  -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한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8%를 차지함.
  
- 고령화로 인한 노후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함.
  - 기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중심의 돌봄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달체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함.
  
- 농촌은 도시와 달라 대상자가 의료와 돌봄 시설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돌봄 제공만으로는 농촌 지역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시·군·구 중심지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돌봄 체계에서는 면이나 마을 단위 돌봄 대상자는 소외<sup>10)</sup>
  - 면 지역에는 민간 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워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크게 떨어짐.

10) 면적이 29.57km<sup>2</sup>인 관악구에는 149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면적이 443.5km<sup>2</sup>인 홍성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16개에 불과함.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면이나 마을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의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전략으로 주거 지원과 방문 요양 및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는데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한 면 단위 농촌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려면 공적 돌봄 체계 개선과 함께 면 단위 주민 공동체가 돌봄의 주체로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함.
  - 면 단위 주민 참여 공동체가 공적 돌봄 체계 틈새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면이나 마을 단위 잠재 수요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 농촌 미충족 돌봄 수요 분석

### 2.1. 농촌 노인 돌봄 수요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음.
-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더 심각하여 30.2%에 달하여 도시인 동 지역보다 무려 2.2배가 높으며 면 지역에만 약 141만 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
- 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은 면 지역이 9.2%로 2.9%인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음.

## 지역별·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및 고령화율

단위: 만 명, (%)

지역구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80세 이상 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도시(동)	4,213	578	(13.7)	124	(2.9)
농촌	972	225	(23.1)	64	(6.6)
	읍	503	83	21	(4.2)
	면	469	141	43	(9.2)
합계	5,185	803	(15.5)	189	(3.6)

주: 2019년 12월 기준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면 지역에는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거주함.
  -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sup>11)</sup>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up>12)</sup>을 기준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27.3%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운 잠재 돌봄 수요자임.
  - 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22만 명<sup>13)</sup>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으므로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 돌봄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정상이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경계 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임.
  - 신체기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은 평가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판정을 받을 수 있음.

11) 매일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사위,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개 항목으로 측정함.

12)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개 항목으로 측정함.

13)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76.5만명,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대 인원은 45만 명으로 총 121.5만 명임. 이 중에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수혜 대상자(17.6%)를 추정하면 약 22만 명임.

-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 상태 노인(A, B, C)은 향후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예방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신체·인지기능별 등급판정 및 사각지대

판정기준		신체기능		
		저하	경계	정상
인지기능	저하	1~4등급	5등급	인지등급
	경계		복합위험(C)	인지위험(A)
	정상		신체위험(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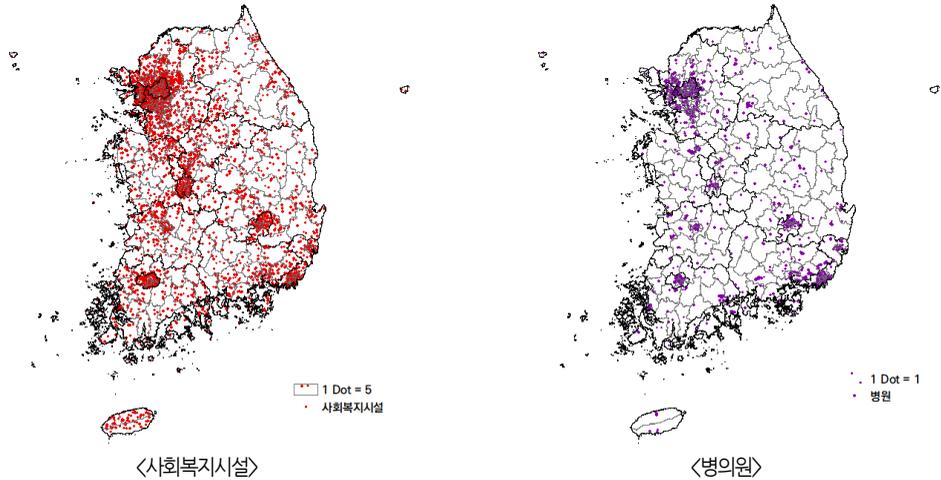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신체나 인지기능이 모두 정상이나 정서적 불안이나 고독감을 겪는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서적·사회적 문제를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신체적 문제가 없으며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 정신적 문제나 사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에게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하는 돌봄 서비스를 공적 돌봄에서 제공하기 어려움.

## 2.2. 농촌 노인 돌봄 공급 분석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 시설은 자치구·일반시에는 평균 119.9개소가 있으나 군에는 평균 39.6개소만
  - 보건소 및 조산소를 제외한 병·의원은 자치구·일반시에는 평균 517.7개소가 있으나 군지역에는 평균 51.4개소

##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분포 현황



주: 병원시설은 보건소 및 조산소를 제외한 병·의원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주요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지역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저소득	기타	합계
자치구·일반시	4,881 (54.2)	2,776 (30.8)	2,061 (22.9)	267 (3.0)	115 (1.3)	688 (7.6)	10,788 (119.9)
도농복합시	3,547 (62.2)	1,851 (32.5)	1,340 (23.5)	121 (2.1)	77 (1.4)	309 (5.4)	7,245 (127.1)
군지역	1,610 (19.6)	804 (9.8)	566 (6.9)	40 (0.5)	78 (1.0)	146 (1.8)	3,244 (39.6)
합계	10,038 (43.8)	5,431 (23.7)	3,967 (17.3)	428 (1.9)	270 (1.2)	1,143 (5.0)	21,277 (92.9)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 안 수는 사군구당 기관 수를 나타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indox.do>). 『사회보장통계』

### 주요 병의원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지역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	합계
동부	215 (2.4)	927 (10.3)	22,166 (13.8)	12,594 (246.3)	9,864 (109.6)	825 (9.2)	46,591 (517.7)
읍부	122 (2.1)	420 (7.4)	8,420 (147.7)	4,645 (81.5)	3,920 (68.8)	545 (9.6)	18,072 (317.1)
면부	19 (0.2)	142 (1.7)	1,905 (23.2)	963 (11.7)	976 (11.9)	207 (2.5)	4,212 (51.4)
합계	356 (1.6)	1,489 (6.5)	32,491 (141.9)	18,202 (79.5)	14,760 (64.5)	1,577 (6.9)	68,875 (300.8)

주: 2019년 4/4 기준. 괄호 안 수는 사군구당 기관 수를 나타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농촌은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여가 서비스에도 접근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 인구 만 명당 시설 수가 도시에는 0.53개소인데 농촌에는 0.38개소이며, 면에는 0.12개소에 불과함.
  - 도시 지역에는 행정구역당 0.15개소가 있으나 농촌에는 0.06개소가 있으며, 면에는 0.01개소로 거의 없음.
- 면 지역에 노인 돌봄 시설이 농촌에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면 중심지에 위치하여 마을 단위 거주 노인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버스는 행정리 당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6.1회이며, 특히 노선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 면이 전체의 20%임.

## 농촌 노선버스 운행 횟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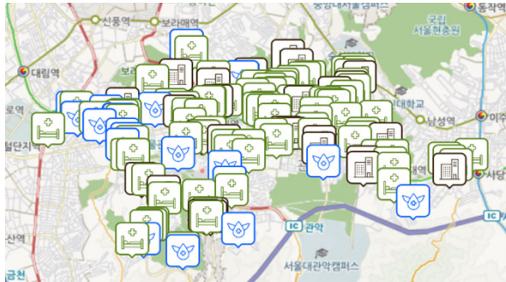
단위: 개, 회

지역구분	행정리 수	미운행	운행 횟수					
			1~3회	4~6회	7~9회	10~15회	15회 이상	
전국 (비율)	36,792	2,349 (93.6)	34,443 (93.6)	4,390 (11.9)	9,208 (25.0)	3,907 (10.6)	5,595 (15.2)	11,343 (30.8)
읍부 (비율)	8,598	517 (5.9)	8,181 (94.1)	603 (6.9)	1,573 (18.1)	596 (6.9)	1,034 (11.9)	4,375 (50.3)
면부 (비율)	28,094	1,832 (6.5)	26,262 (93.5)	3,787 (13.5)	7,635 (27.2)	3,311 (11.8)	4,561 (16.2)	6,968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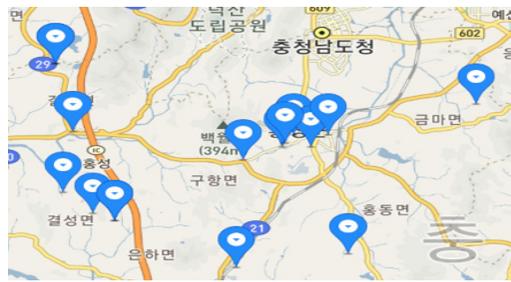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지역조사(3-2권).

- 농촌의 시설 접근성을 설명하고자 홍성군(장곡면)과 서울시 관악구의 노인 돌봄 시설 접근성을 비교 분석함.
  - 관악구의 면적은 29.57km<sup>2</sup>로 홍성군 면적 443.5km<sup>2</sup>뿐만 아니라 홍성군 장곡면의 면적은 54.91km<sup>2</sup>보다 좁음.
  - 홍성군의 인구는 100,423명, 홍성군 장곡면의 인구는 3,507명이나 관악구 인구는 500,094명임.
  - 관악구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수는 149개인 반면 홍성군은 16개, 홍성군 장곡면은 한 군데도 없음.
  - 홍성군 장곡면에 거주하는 노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실상 어려움.

##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분포 현황



〈관악구〉



〈홍성군〉

자료: 관악구, 홍성군 홈페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경로당은 농촌에서 노인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하나 공동급식이나 방문의료,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돌봄 시설로서 한계가 명확함.
  - 전남 영광 M면의 사례를 보면 2018년 기준 경로당 24개소 중 노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로당은 5곳에 불과함.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불리한 환경에서 공적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3.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정책 방향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농촌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정책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돌봄 제공의 기획·관리·운영하고 모든 주민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체계” 로 정의함.

-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돌봄을 기획·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실현하는 것이 목적
- 주민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돌봄 사각지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해야 함.
  - 약간의 신체적·인지적 불편이 있으나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지금은 건강하나 노화 때문에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함.
  - 방문 의료와 문화·여가 프로그램,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공동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등의 예방적·보충적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자원인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거점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사례로서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 하나인 ‘우리 동네 거점 돌봄 센터’가 있음.
- 농촌 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자 돌봄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 필요
  - 농촌은 고령화·과소화, 생활 환경, 보수 문제로 돌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워 지역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육성하는 방안 필요
  - 비교적 젊은 주민이나 귀농·귀촌인과 같이 역량이 있는 주민을 길러내는 양성 체계 필요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2020년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김선형\*, 서동주\*\*, 김재휘\*\*\*

## 1. 분석 배경

### 1.1. 농가경제의 악화

- (코로나 19 발생)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 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최초로 발생함.
  -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확산함.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전염병에 대한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에 해당하는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을 공식 선언함.
  - 2020년 11월 현재 219개 국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는 4천 6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백 20만 명에 육박함.
  - 2020년 11월 현재 국내 확진자는 2만 7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집계됨.
- 중국을 제외한 G20 국가 모두 2020년에 경기 불황을 보임.
  - 2020년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는 6개 국가(아르헨티나,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전문연구원(sunh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전문연구원(tjsu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raccoon\_kjh@krei.re.kr)

- 2021년 경제 회복세는 코로나의 영향이 심화하기 전인 2019년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실질GDP 성장률 (%)

Country	2019	2020
Argentina	-2.1	-11.2
Australia	1.8	-4.1
Brazil	1.1	-6.5
Canada	1.7	-5.8
China	6.1	1.8
France	1.5	-9.5
Germany	0.6	-5.4
India	4.2	-10.2
Indonesia	5.0	-3.3
Italy	0.3	-10.5
Japan	0.7	-5.8
Korea	2.0	-1.0
Mexico	-0.3	-10.2
Russia	1.4	-7.3
Saudi Arabia	0.4	-6.8
South Africa	0.1	-11.5
Turkey	0.9	-2.9
United Kingdom	1.5	-10.1
United States	2.2	-3.8
World	2.6	-4.5
Euro area	1.3	-7.9
G20	2.9	-4.1

자료: OECD

- (농가경제 파급영향 : 국외) 코로나 19가 장기화하고, 백신 개발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해외시장이 축소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수출량 감소, 총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가경제 파급영향 : 국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함.
  - 한국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성장으로 예상되면서 실업률의 증가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국내 경기의 불황 지속과 국내 농산물의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업생산액 변화 분석결과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9	2020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농업총생산액	50,428	50,438	-0.4%	-0.9%	-1.0%

주: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제23권 제2호, “코로나 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1)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해외 수요 증가 영향보다 커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2) 코로나 19의 장기 지속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 커져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3)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농산물 교역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1.2. 소비자 설문조사의 시행

- (청탁금지법 상한액 한시적 상향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함.
  -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응답 가구의 거주 비율 중 수도권이 48.3%로 가장 높고, 인천, 대구, 부산이 각각 11.3%, 10.0%, 6.7% 순으로 나타남.
  - 응답 대상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73.2%이고, 약 26.8%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약 84.1%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 가구의 소득은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 가구의 약 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 대상의 직업은 주부가 5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관리 및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조사 현황

단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기타
48.3	11.3	10.0	6.7	23.7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학력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조사 현황

단위: %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26.8	22.4	46.4	4.4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주거 형태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조사 현황

단위: %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72.6	11.5	15.9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소득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조사 현황

단위: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 400만 원	400만 원 ~ 600만 원	600만 원 이상
6.3	33.7	48.7	11.3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직업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조사 현황

단위: %

주부	관리 및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기타
51.3	10.2	18.0	5.9	14.6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2. 명절 농식품류 소비행태 동향

### 2.1. 명절 선물의 종류 및 구매 비중

- 소비자 패널이 구매하는 추석 선물은 대상에 따라 지인 및 친척을 위한 선물과 사업 및 업무 관계자들을 위한 선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상에 따라 선물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소비행태 조사 결과, 작년과 비교해 선물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농식품류 선물과 비 농식품류 선물의 비중이 각각 소폭 감소하였음.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경우, 2020년에 구매한 선물의 비중은 농식품류가 각각 64.7%, 38.2%, 비 농식품류가 각각 25.1%, 21.3%를 차지하여,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권, 현금, 공산품 등의 비 농식품류 선물은 2019년 대비 구매 비중의 감소 폭이 미미함.
  - 선물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의 비중은 각각 4.1%p, 3.2%p 증가하여, 2019년에 비해 2020년 선물 구매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추석 선물의 형태

단위: %

	구분	농식품류	비 농식품류	구매하지 않음
2019	지인·친척	67.3	26.6	6.1
	사업·업무	40.9	21.8	37.3
2020	지인·친척	64.7	25.1	10.2
	사업·업무	38.2	21.3	40.5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했던 농식품류의 선물 비중은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의 순으로 나타났음.
  - 명절 차례상에 필요한 과일이 추석 농식품류 선물의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 캔햄, 식용유 등의 가공식품, 한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남.
  -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비중의 합이 전체 농식품류 선물의 약 88.3%를 차지하며,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던 품목들의 소비가 이번 명절에도 지속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했던 농식품류의 선물 비중은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비교하여 선호도 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지인·친척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농식품류 선물의 종류 및 비중

단위: %

구분	과일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가공식품	기타
지인·친척	53.2	12.9	4.8	4.3	22.2	2.7
사업·업무	44.9	6.5	4.1	4.4	34.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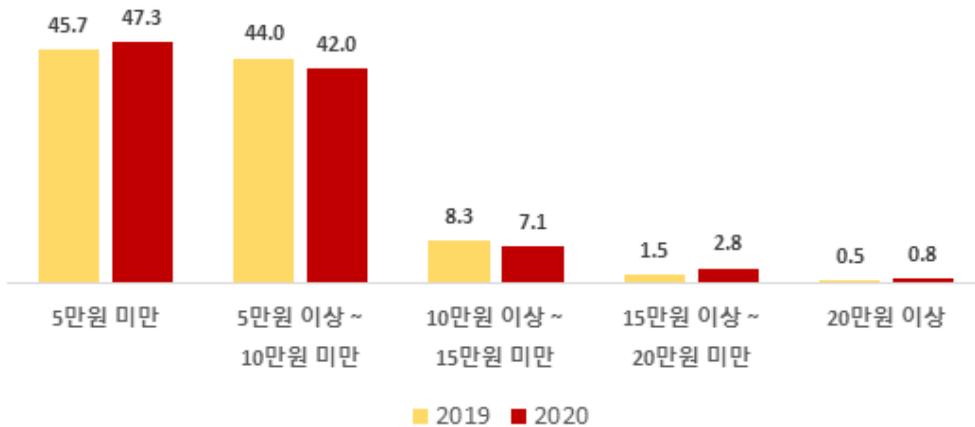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2.2.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

-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는 고액 부분에서 2019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그 수치가 미미한 정도임.
  - 추석 선물 평균단가가 15만 원 이상인 응답 가구의 비중이 2019년 2.0%에서 2020년 3.6%로 증가함.
  - 평균단가가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인 추석 선물을 구매한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 52.3%에서 2020년 49.1%로 감소함.

- 추석 선물 평균단가가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보다 1.6%p 증가함(45.7% → 47.3%).
- 저액과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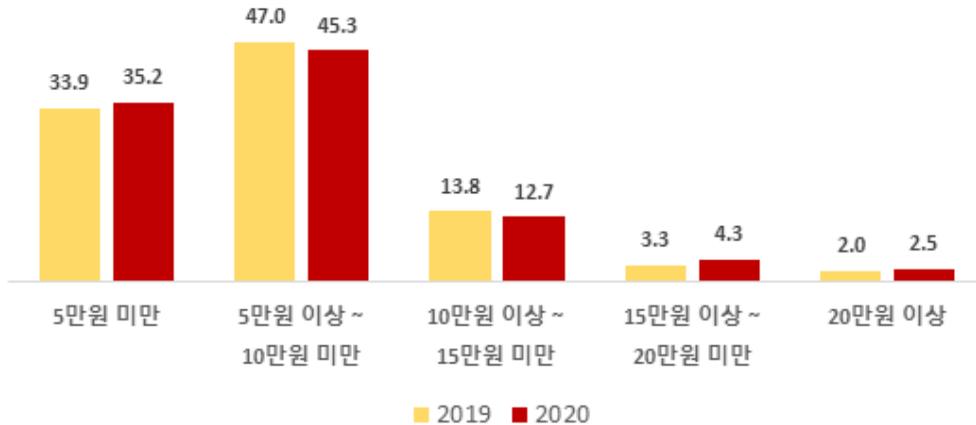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평균 단가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추석 선물의 최고 단가는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보다 2020년 증가했지만, 평균단가와 같이 큰 차이가 없음.
  - 추석 선물 최고 단가가 15만 원 이상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0년 6.8%로 증가함.
  - 최고 단가가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인 추석 선물을 구매한 응답가구의 비중은 2019년 60.8%에서 2020년 58.0%로 감소함.
  - 추석 명절 선물 최고 단가가 5만 원 미만인 응답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1.3%p 증가함(33.9% → 35.2%).
  - 평균단가와 같이 고액 부분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최고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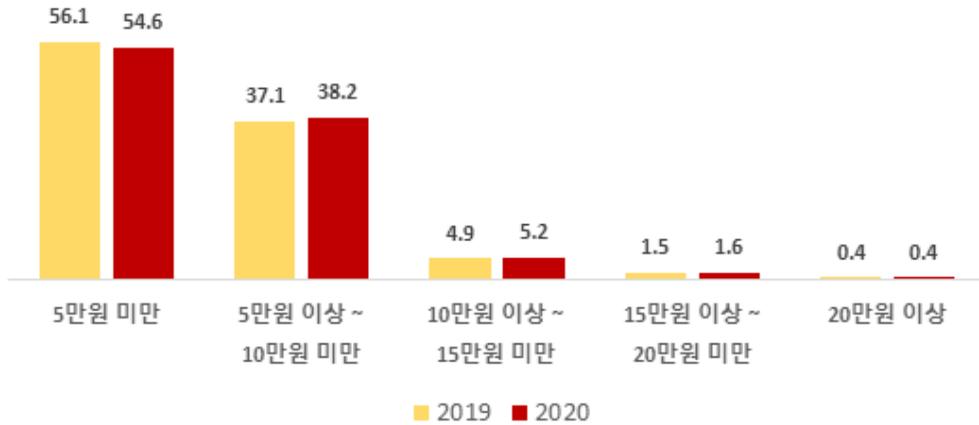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2.3.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

-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의 경우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함.
  - 평균단가가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인 추석 선물을 구매한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 43.6%에서 2020년 45.0%로 증가함.
  - 추석 선물 평균단가가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1.5%p 감소함(56.1% → 54.6%).
  - 평균단가가 20만 원 이상인 추석 선물을 구매한 응답 가구의 비중은 작년과 올해 유사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증가 값이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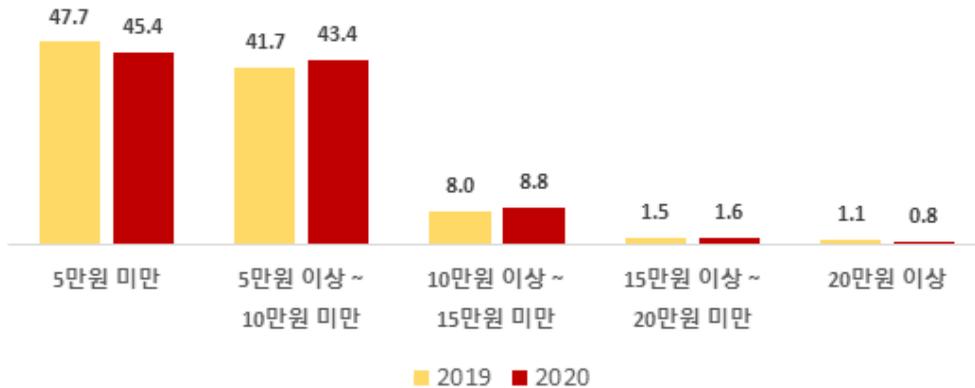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평균 단가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명절 선물의 최고 단가는 저·고액 부분에서 2019년보다 2020년 비중이 감소하고,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추석 선물 최고 단가가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작년 51.1%에서 올해 53.8%로 증가함.
  - 최고 단가가 5만 원 미만과 20만 원 이상인 추석 선물을 구매한 응답 가구의 비중은 작년보다 올해 각각 2.3%p, 0.3%p 감소함.
  - 15만 원 이상인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증감률의 크기 변화는 미미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최고 단가



자료: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

### 3.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수출량 감소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나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가 같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